(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3 1981년10월2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October 24, 1981

OCT 27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재봉사 취업이민 보류

1년이내 이탈·저임금등 문제화

봉제협회서 초청 재검토중

한국 재봉사들의 이민이 잠시 중단됐다. 지난9월12일 35명의 금년도 제1진이 도착한 이후 캐나다이민국은 마니토바봉제협회 요청에 따라 입국을 보류시키고 있다. 작년11월부터 한국재봉사들의 취업이민 문호가 개방, 수년내로 약2천명의 재봉사가 캐나다에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최근 취업 1주년이 가까와 오면서 재봉사의 약10%가 직장을 떠나자 이들을 초청한 봉제협회는 한국인들의 고용을 재고하게 되었다. 재봉공 들은 캐나다의 법에 따라 초청자와 고용계약은 맺지 않았으나 대체로 1년간은 일해 주는 조건으로 캐나다에 왔다.

위니펙한인회장 김원겸 박사등은 "봉제협회관계자들과 만나 이민중단이유등을 알아 보았으나 협회측은 '1년도 못돼 벌써 10% 가 탈락 했다. 한국봉재공들은 이민을 오기위해 우리를 이용한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토론토를 방문한 위니펙의 이영선목사에 의해서 밝혀졌고 김 한인회장은 이를 인정했다.

김회장은 "재봉사들의 이탈도 문제가 되나경영주자체에 달린 문제점도 많다"면서 "어떤공장주들은 그들의 기술부족을 이유로 약속했던 최저임금을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훈련공의 임금율을 적용, 월400달러선을 지불하는데도 있었다"고 봉제업계를 비난했다.

봉제협회측은 "한국인들의 기술은 문제가 안된다. 누구든지 1~2달이면 숙달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상훈 총영사와 조홍래 영사는 사태 파악차 22일 급거 위니펙으로 떠났다. 재봉사들의 해외취업문제를 관리하는 한국해외 개발공사도 조사관을 캐나다로 파견, 진상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업무연락차 토론토에 들린 마니토바한인교회 이목사는 "우리가 이들에게 희망하는것은 앞으로 계속 도착할후배를 위해 1년만 참고 일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봉제업이 주요산업인 위니펙에는 작년 11월에 도착한 1진 100여명과 후진 80여명등 180여명의 한국재봉사가 있으나 1진중 약 10% 인 10여명이 토론토, 캘가리, 뱅쿠버등지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마니토바주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취업이민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과 3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현재 위니펙에는 필리핀·홍콩등지에서 이민온 수천명의 재봉사들이 있다.

월드시리즈

양키즈 다저스에 2연승

봅·왓슨 맹타 휘둘러

(뉴욕) 21일 양키즈 스타디엄에서 속개된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양키즈는 다저스를 다시 3:0으로셧아웃, 81년도 월드시리즈 2연승을 기록했다.

지난20일 1차전에 봅·왓슨의 드리런·홈런등으로다저스를 5:3으로 물리쳤던 양키스는 이번에도 토미·존, 구즈·구세지로 연결하는 투수진의 대활약으로LA다저스 타선을 4안타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23일의 3 차전 부터는장소를 LA다저스 구장으로 옮겨 3, 4, 5차전을 치룬후 필요하면 뉴욕으로 다시돌아와 27, 28양일간 나머지6 7차전을 벌인다.

월드시리즈는 7전 4 선승제로 어느 팀이든지 4승만 올리면 끝이난다.

이날 양키즈는 토미·존, 다저스는 봅·후톤을 각각 선발투수로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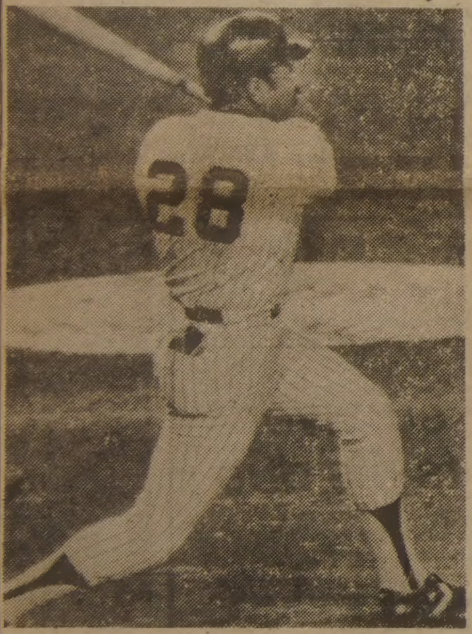
비록 5회에 양키스가 다저스 내야진의 실책과 2루타로 1점을 선취했으나 7회말 까지는 투수전으로일관했다.

그러나 8회말 양키스는 1 차전의 히어로 봅·왓슨의 1타점 적시타로 1 점을 추가, 쐐기를 박았다.

한편 미스터·옥터버(Mr. October)라 불리우는 양키스의 수퍼스타 레기·잭슨은 이날도 근육부상으로 결장했다.

금년 월드시리즈는 내셔날리그의 규칙을 적용, 지명대타제(Designated Hitter)가 없기때문에 레기·잭슨은 지명대타자로도 출전할수 없다.

지명대타제 : 투수대신에 대타자를 지명하는 제도 투수는 투구에만 전념한다. 내셔날 리그에서는 그대로 종전룰을 적용, 투수도 타석에 들어선다. 아메리칸리그와 세계 아마추어야구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월드시리즈에서는 격년제로 이제도를 시행한다.



◇1, 2차전의 최고수훈 선수 양키스의 봅·왓슨

히말라야에 도전 한국여성 등반대

(서울22일=연합)한국선경물산 여성알파인 클럽에에 소속된 6명의 여성등반대원은 내년4월 세계여성알파이니스트로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람정히말에 등반, 6,986미터정상에 도전한다.

동 알파인클럽은 작년초 20여명의 회원으로 클럽을 구성, 곧 히말라야 원정을 계획해 왔다.

이들은 원정에 대비, 사철을 가리지않고 맹훈련을 계속해 왔다.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 ③

코미션은 16% 선

여행사종업원은 모든것에 박식해야 한다. 세계각국의 지리, 풍습은 물론 여권법, 통관, 금리, 물가등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법률가가 되어야하고 은행원도 되며, 지리학자, 회계사등으로 변신해야 한다.

틀린 정보를 주어 여행기분을 잡치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래서 여행사는 "알아야할 것은 많고 이윤은 적은 업종"으로 알려져 왔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관광학과의 루덴버그교수도 "여행사사장은 절대 부자는 될수 없다. 그대신 자유로운 무료여행(Free-Travel)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인이다."고 정의한다.

교수의 말이 진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여행관계 시리즈를 보고 본사에 전화를 걸어온 거의 대부분 독자는 여행사의 마진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여행사는 "우리는 항공사측이 결정한 만큼의 코미션을 받을 뿐이다"고 항의한다.

본사 조사에 의하면 현재 KAL측은 한국왕복 1,360(LA경유)달러, 1,320달러(뉴욕경유)중 한국계 여행사들이 받는 코미션은 요금의 약16~17% 인 230 2[illegible]달러이다.

C여행사대표는 "최소한 이정도의 코미션은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서울왕복 정규요금 2,260달러의 약 10% 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여행사가 봉사기관이 아닌 이상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교민들에게 적용하는 요금 1,320달러는 교민들을 단체로 취급, 할인한 특별요금으로 정규요금보다 약 940여달러가 싸다.

코미션은 1,380달러의 10% 인 138달러이다.

그러나 C.P. 항공사측은 이 코미션외에도 비행구간중 CP가 차지하는 부분(토론토~동경)에 대한보너스·코미션("over-ride")를 지급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1장 이윤 $2백 정도

단체표 이윤은 가변적

따라서 계산상으로 볼때 여행사들은 KAL표 서울왕복1장에는 230 달러 CP1장에 근200달러를 남겼다.

그러나 N여행사 대표는 "계산대로 이윤이 우리주머니에 전부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일부 손님들은 2, 3개월 외상으로 표를 끊는다. 그러나 항공사측에서는 매주일 여행사에서 수금을 함으로 그동안 이자등은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만약여행자들 끼리 구룹으로 뭉쳐 10여명씩 단체행동을 할때는 또 틀려진다. 이경우 항공사별, 노선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5명당 1명의 여행안내자가 인정되어 무료표 1매가 제공되나 코미션은 어디까지나 항공사 세일즈맨과 여행사간의 거래에 따라 결정된다.

한 예를 들어 지난 10월초 캐나다 체육회선수단 17명의 모국체전 참가 그룹은 단체이므로 1인당 약100달러이상의 할인을 받았으나 선수들과 함께 가는 일부 일반교포들에게도 할인이 주어지자 선수단표를 취급하지 않은 다른 여행사들이 크게 반발, 여행사간의 협정이 파기되고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블루어 한국계 여행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계속]

주택임대난 심각예상

내년까지 4만명이 집내놓을 듯

정부 비밀보고서 야당서 공개

(오타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작성된 비공개 연방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서 약4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빼앗기며 저소득자의 주거지 임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작성하고 폴·코스그롭 주택장관이 서명한 27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21일 신민당(NDP) 의 에드·브로드벤트당수가 입수, 의회에서 공개했다.

「브」당수는 정부가 주택임대자및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당장 줄여주는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주택장관의 사임을 주장했다.

코스그롭장관은 앞서 전국에 주거지 위기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 83년도 주요 대도시 아파트 유휴율(베이컨시·레이트 : 총 아파트 수와 임대 안된 아파트의 비율)은 거의 0이 되어 아파트 임대에 관한 암시장이 형성된다. 가족이 있는 가정은 더욱 아파트 임대가 어렵다.

집을 산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이다.

■ 내년까지 10만명의 주택소유자가 모기지를 갱신해야하나 3~4만명은 높은 이자율 때문에 새 모기지를 얻지 못한다. 11개의 가구중 1가구는 가계부에서 모기지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을 넘는다(25% 이하가 안전).

■ 지난 4월현재 브리티쉬·콜럼비아주 빅토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의 아파트 유휴율(베이컨시·레이트)은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주택건축율은 기록적으로 떨어져 내년도의 주택건축부문 고용율은 금년보다 연3만명이 감소한다.

■ 새 아파트의 임대료는 금년초 건축된 아파트 임대료보다 40% 이상 이어야 주택업자의 타산이 맞는다.

■ 주택 건축업계의 불황은 경제여건이 좋은 곳으로의 노동자 이주를 감소시킨다.

■ 메케쩬 재무장관이 은행관계자들과 만나 교섭한 이자 후불제도, 상환 기일의 연장등 계획은 모기지 갱신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

한국, 31대17로美격파

핸드볼 친선경기에서

〈뉴욕지사〉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14일 하오7시30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미국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31대17(전15-8, 후16-9)로 승리했다.

오늘 신문 금·토요 합편 14면 발행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물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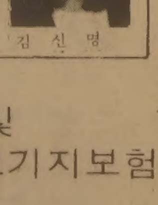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 922-3111 R) 439-8885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문선명교주 한국 잠적

연방법원 탈세혐의로 기소후

소득세 탈세혐의로 지난 15일 미연방법원에 기소된 이래 행방이 묘연했던 통일교 문선명교주가 한국에 잠적한 사실이 20일 통일교대변인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대변인은 문교주가 22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맨하탄 연방대배심에 제출된 12개항목에 걸친 기소장에 의하면 문씨는 은행이자로 받은 11만2천 달러와 주식으로 받은 5만달러의 소득을 보고치 않았으며 문씨의 고위 보좌관중 하나인 다께루·가미자마씨는 문씨가 허위보고 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

이에 대해 문씨의 변호사 찰스·스틸먼은 "전연 근거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기소사실에 문교주는 극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8년 10월31일 미하원의 한미관계 조사위원회는 통일교가 미국의 세법과 이민법 은행법및 통화법 그리고 외국인 대리점 등록법등을 계획적으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연방및 주정부의 자선기금 시행에 관한 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었다.

이번의 기소장은 문씨가 73, 74, 75년도의 인컴텍스를 가미자마씨와 공모허위보고한 혐의다. 가미자마씨는 문씨의 74, 75년도 인컴텍스 허위보고를 방조했으며 정부에 허위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통일교의 사업체 성격을 이유로 통일교에 대한 면세조치를 거부한바 있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통일교는 전세계 137개국에 300여만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문선명 교주

다가온 할로윈데이…童心이 부푼다

오는 31일은 매년 동심이 [illegible]지는 할로윈데이. 벌써 [illegible]을 벗어난 교외에는 가[illegible]히 널린 호박들로 꼬마들의 마음을 부[illegible] 한다.

로버트·슈나이어 장군

미 안보회의위원직 박탈돼

공개석상"소련침공 임박"발언이 화근

〈워싱턴—UPI〉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우위를 확보했으며 소련이 멀지않아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한고위장성이 2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위원자격을 박탈당했다.

로버트 슈와이처(53세)소장은 지난주말 육군고급장교들이 다수 참석한 한모임에서 소련의 군사적 우위와 침략 임박을 주장했는데 백악관은 슈와이처장군의 발언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레건대통령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슈와이처소장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최고위 장성중의 하나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슈와이처소장이 사전에 연설내용에 관해서 그의 상사인 리차드 알렌 안보담당백악관보좌관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발언으로 문제가된 슈와이처소장.

$25 때문에 살인

김만철씨를 지명수배

(LA지사)

18일에 발생한 코리아타운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LAPD의 도먼수사관(OFFICER·DORMAN)은 20일『경찰은 살인용의자로 김만철(33)을 정식으로 지명, 사진수배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국컴뮤니티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서 용의자가 자수할 것과 주위에서도 이를 도와 줄것을 당부했다.

현재 김씨의 영주권, 여권등 관계증명서등을 압수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의 주변인물과 가족·친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은 LA총영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이용의자의 국외 도피를 막기위한 조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당한 이근원씨의 시체를 검시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시소의 에드워드·와이스버드검시관은 20일 정오『LAPD경찰관계자 입회하에 하오부터 시체해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력수출 박차

한국, 내년에 18만명

(서울22일=연합)한국은 내년 176,200명의 인력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보다 14% 상승한 것이다.

이들은 벌어드리는 예상 외화소득은 15억5 천만 달러로 올해보다 20% 증가한 액수이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82년 노동정책문서에 의하면 정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위해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지역과 라틴아메리카및 아프리카 지역에 해외 노동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동시, 리비아와 바레인 노동부장관을 비롯, 여러나라노동부관계 고위당국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해외한국근로자들과 고용주들간의 협조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하여 내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서독및 쾌타르에서 노사간의 합동회의를 주선한다.

해외이민 44만5천

캐나다 2만, 미국은 34만

(서울22일=연합)한국노동부는 22일 한국정부가이민정책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6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71개국에44만 4,310명이 이민했다고 발표했다.

· 노동부는 동기간중 매년 평균 2만2천명이 해외로이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338,875 명의 한국이민자를 받아 전체한국이민자수의 76%를 기록했고, 그다음이 캐나다 20,743명(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온 이민자수 제3국을통하여 들어온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캐나다내 교포수는 4 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파라과이13,204명, 브라질 10,183명, 스웨덴 5,279명, 덴마크4,614명, 프랑스가 4,375명이다.

이밖에 과거 20년간 한국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는 알젠틴(4,317), 일본(3,361), 벨지움(2,954), 오스트렐리아(2,908), 놀웨이(2,768), 네델란드(2,725), 볼리비아(1,849)및 스위스(1,222)이다.

모국 체전

캐나다 16위

테니스·태권도로 체면유지

지난15일 폐막된 제62회 한국체전에 출전한 캐나다교포팀은 테니스에서 111점, 태권도에서 5점을 얻음으로써 독일을 눌러 종합순위 16위로 최하위를 면했다.

국내 13개 시, 도팀, 해외 4개팀등이 참가, 6일간에열전을 끝낸결과, 서울은 메달수 득점에서 종합우승, 2년만에 패권을 되찾았으며, 작년도우승 경기팀은인천직할시의 분리출전으로 7위에 머무른 반면, 전남이 2위, 충남이 3위를 차지, 새로운 강호로 치솟았다.

해외팀으로는 재일동포가 14위, 재미 15위, 캐나다 16위, 독일교포팀이 최하위였다.(별표참조)

◇제62회 전국체육대회 종합득점표

시도	육상 트랙	육상 필드	육상 마라톤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합계	순위
서울	1018	1264	725	3720	1703	650	1456	1627	1910	1473	1688	1070	1530	235	1330	907	2384	812	2128	953	1722	3299	1380	2222	655	838	1269	2377	850	42,568	1
부산	580	2411	948	976	842	840	722	760	733	813	756	1135	880	1119	1220	1018	692	1257	1962	834	1011	1014	542	773	532	1446	1040	1319	660	29,402	6
대구	340	129	348	995	801	1045	764	691	1002	878	1235	955	330	122	766	1185	789	912	918	911	524	1623	1009	495	369	304	985	992		21,486	10
인천	946	1246	696	390	721	1125	926	480	869	373	1238	681	450	716	630	764	1075	832	701	815	1867	1977	620	463	386	683	769	1764	425	24,839	9
경기	1080	651	1334	1786	1062	845	1368	564	952	931	605	768	450	1368	1452	749	2148	629	1940	776	650	274	737	1233	1014	488	457	1364	1187	28,740	7
강원	188	1196	602	1022	641	250	1183	1058	476	706	1109	470	450	1518	883	1273	665	731	428	213	334	1235	813	199	650	1103	359	985	536	20,782	12
충북	993	1279	493	2692	341	640	796	940	586	945	993	768	880	1064	756	982	895	791	1012	913	497	957	155	1532	1422	1277	1269	1276	303	27,183	8
충남	2229	1246	1298	2558	821	450	764	1011	574	1030	1098	768	1410	1403	1031	1735	2144	751	929	581	873	1509	698	1736	795	1188	695	1430	890	33,235	3
전북	1454	931	1334	748	1362	450	1271	1520	1007	801	932	1348	450	270	1920	1437	1318	589	833	1088	855	1123	932	1022	509	1015	1010	1279	626	30,058	5
전남	2177	1390	1044	1063	521	450	1092	447	864	472	714	1373	120	1124	2212	1827	1843	406	1779	1302	1649	862	1282	1418	1327	1724	1112	1538	588	33,936	2
경북	945	1001	1356	932	922	840	1060	1011	139	475	780	318	330	994	545	1382	962	812	1357	290	524	502	658	620	176	538	235	1201	614	21,085	11
경남	1370	1040	542	2495	721	735	1564	295	881	1202	598	409	1100		1053	1346	1225	1257	765	1088	2580	947	445	507	745	1447	1124	1809	600	31,600	4
제주		209	58	17	481		111					76			155			122	88	116	53	1124					74	796		3,775	13
재일		209		26	341		111		406	298	239				69	175			260			248						55		2,437	14
재미											76											159	310					179		1,116	15
재캐							111																					52		163	16
재독																						29								29	17

社說

모국어의 비중

— 현상문예·우리말대회를 보고

모국어의 비중은 민족의 혈통만큼이나 크고 소중하다.

한 민족의 전통문화와 고유사상·역사·풍습등이 우선 자국민에 의해 존중되고 계승되어 더욱 발전의 길을 걸을 때 그 민족은 우수민족으로 길이 살아남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민족은 사양길을 걷게 마련이고, 급기야는 소멸의 비운을 겪는 것을 인류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그같은 민족 고유의 고차원 유산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최대의 연장은 바로 언어(국어) 임은 자명한 일이다.

일찌기 티벳문화와 남미의 잉카·마야문명등이 그 시대에는 찬란한 황금기를 맞았으나 이를 제대로 계승시키지 못했음은 언어문화의 미개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여기 두 실례가 있다.

유대족들은 비록 1천여년의 긴 세월을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도, 모국어를 고이 지켜 후손에게 알뜰히 계승시켜 내려왔기에 오늘날 찬란한 문화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는데 반해, 흑인들은 제대로의 언어문화를 갖지 못했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들의 실상(實相)이 저 꼴임을 목격하고 가슴에 짚이는 바 적지 않다.

모국을 떠나 새로운 천지로 뛰어든 이민현지의 교포들에게 있어 모국어는 심각한 당면문제이다.

영어, 또는 불어습득의 긴급필요성 때문에 가정에서 모국어 사용을 기피하는 몇몇 부모 탓으로 자녀가 한글을 멀리하고, 천대하게 되고, 나아가 모국어 망실의 비극을 개인으로서 겪게됨을 간간 목격하여 가슴에 주름이 잡힐 때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남의 땅에 와서사는 이상 현실을 직시하여 현명하게 적응·동화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영어 공부에 열중해야 함은 당연중의 당연지사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얼, 즉 모국어 익히기에도 결코 소홀히 않는 "양수겹장"을 주장하는 바이다.

사람에게는, 특히 유년기·소년기에는 2개국어, 3개국어의 습득능력이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 두 언어를 꼭 자기것으로 익히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지니고 자신있게 노력하여 익혀 나가기를 촉구한다.

우선 부모가 그같은 포부와 필요성에 투철하여 앞장설 때, 자녀들은 즐겨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최근 토론토 사회에서는 우리말을 위한 두가지 값다운 행사가 있었다.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가 그 하나요, 다른 하나로 실협의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꼽겠다. 이것은 10월 "한글날"이 낀 달에 알맞는 행사요, 그 효과와 영향면에서 매우 소중한 문화행사였다. 전시 효과나 행사치레에 그치는 잡다한 행사들보다 보람있는 이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문인협회는 제5회 "신춘문예"현상모집을 시작했다. 이것 또한 조용하면서도 비중 큰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및 발전에의 도약대이므로 교민 다수의 열띤 호응과 뒷받침이 있기를 촉구한다.

한가지 유감된 처사는 박인순한인회장단의 개천절·한글날기념 한글백일장의 일방적 중지사건이다.

이 백일장은 과거 3년간 한인회와 문인협회 공동주최로 해마다 실시되어온알찬 문화행사였는데, 유독 현 한인회장단은 일방적으로 이를 중지해 버려, 뜻있는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인회의 많은 연중행사중 캐라반과 백일장은 가장 값진 행사이므로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시켜 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수익 높은 대중음악가

불법마약 수익도 커

60년대와 70년대초 캐나다의 예상치 못한 새로운 투자재원 출처중 대중 음악계를 들 수 있다.

앤·머레이, 고든·라잇풋, 닐·영, 랜디·바크맨, 버톤·커밍스, 단·힐, 머레이·맥라우치란, 브루스·콕번, 러쉬(게디·리, 알렉스·라잎슨과 닐·퍼트), 토론토흥행주 버니·핀켈스타인과 버니·피들러 등은 대중음악계의 백만장자 대열에 끼었다.

지난 10년간 캐나다 경제계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곳은 예상처럼 증권시장이 아니다. 캐나다 연방경찰국의 추산으로는 81년까지 1년에 세금 면제된 30억달러가 불법 마약판매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것은 캐나다 유수의 15개 주식회사들의 총판매액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한편 마약밀매 정보의 권위로 번호사이자 소설가인 뱅쿠버의 윌리암·데버렐은 연방경찰의 추산보다 3배나 많은 90억달러고 본다.

연방경찰은 캐나다내로 밀수입되는 불법마약중 5% 박에 적발하지 못한다고시인했다.

교민동정

◆조덕남(한인미협회장)=다년간의 주택설계·실내장식·도안등의 경험을 살려, Interiors Graphics를 개업했다. 실내장식등을 주로 맡고, 도안·설계등도 겸할 예정(전화 622—5328).

◆이형인(한인실협회장)=현상문예를 마무리짓고 새회장단 선출을 겸한 총회를 앞두고 "유종의 미" 거두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김이열(양로원건립위 총무)=양로원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맘모스 행사"현대한국초대작가전"을 1등공신으로 성황리에 치뤘고, 개인업소를 인수, 곧 문을 연다고.

◆최남권:며칠전 다운타운의 레스토랑을 이태리안에게 인계, 당분간 다른 사업을 찾으며 쉬고 있다. 6년전 빈손으로 이민온 최씨는 가게를 경영하며 열심히 노력, 이젠 경제적으로 발판을 완전히 굳힌 사업가다.

〈우리말 잘하기대회 입상〉

우 리 집

김 남 현(4년생)

나는"우리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하겠읍니다.

우리집은 마캄과 로렌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집에는 우리아버지, 우리어머니, 우리큰누나, 우리작은누나, 그리고 나. 이렇게 다섯식구가 살고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식구들이 놀고 재미있게 살며, 잠도잡니다. 또 우리는 책상위에서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TV도 재미있게 봐요. "That's Incredible", 동물영화, 서커스 같은것은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집에는 또 좋은것이 많이있어요. 피아노, 냉장고, 후리저도 있고, 좋은화분도 있는데, 아주좋은것이 하나 빠졌어요. 그것은 방안에있는 물건인데, 두 어깨가 있고, 얼굴은 둥글며, 쉬지도않고 계속 돌아만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읍니까?

저 아저씨 맞춰 보세요. (답: 시계)

예, 맞았읍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를 생각나게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알아맞출 사람 손을드세요. (답: 태극기)

예 맞았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겠읍니까? (답: 무궁화)

예, 맞았읍니다.

우리집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국말 잘합니까? 잘했으면 박수쳐 주세요.

그럼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1년

추계 한인친선 낚시대회

일　　시: 1981년10월31일 상오8시30~하오4시(우천불문 강행)
장　　소: BELLWOOD CONSERVATION PARK
(문의: 755—9902, 미스타 정, 298—7806 미스타 최)
시　　상: 대어특등, 대어1등, 대어3등, 치어상, 장기상(이상 Pike에 한함)
애석상, 회귀상, 감투상, 부녀상, 아동상, 잉어상 이상 트로피및 부상
심사규정: 참가자는 현장에 마련된 심사본부에 와서 등록번호를 받을 것
●등록비 1인당 5달러. ●1인2종 입상불가
●1인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 사용
●본인이 잡지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음
준 비 물: 각자 낚시대및 미노스, 지렁이, 떡밥등의 미끼 준비 할 것.
심사위원: 곽창수, 최남해, 이정호, 김종선, 김진상, 이장휘, 백은범, 조지섭
대 회 장: 정 삼 열　　심사위원장: 김 재 용
접　　수: 김 종 근
찬　　조: 블루어 안경(구진모), 트로피(김국일)

후　원: 총영사관, 한인회, 노년회, 외환은행, 한국일보, 민중신문, 뉴코리아타임스, 코리언저널 기타 업체

주　최: 한 인 낚 시 협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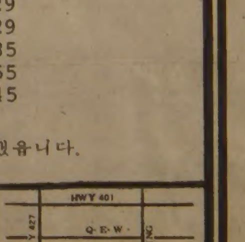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 Schneider Bacon	500g	2.09
* Schneider cooked ham		1.79
* Mini= sizzler		1.99
* Weiner	1 lb.	1.85
* Gift- chocolated box (Lowney)		
- Pot of gold		4.29
- All nut		5.19
- Marashino cherries		4.29
- Half & Half		4.29
- Ovation- mint stick		1.85
- Selection chocolate		2.55
- Almondillos		2.45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새車구입 다섯가지 秘訣

세일즈맨 商術에 맞서는 전문가들의 권고

새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중 9명은 자동차세일즈맨의 상술에 넘어가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된다고 자동차판매업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폭로하고있다.

이 전문가들은 LA 지역에서 수십년간 자동차딜러로 일했던 벤·카르코와 찰스·라이더.

카르코와 라이더는 새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세일즈맨의 상술을 미리 알기만하면 수백달러를 절약할수 있다고 귀띔을 해주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5가지 거래비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결

월말을 4,5일 앞둔날을 택하여 자동차딜러를 방문하되 자동차 진열실에 손님이 없는 한산한 날을 택해야 한다.

시간은 영업마감 시간을 약2시간 앞둔 늦은 오후라야 한다.

월말경에 새차를 구입하면 세일즈맨과 흥정할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일즈맨들은 매월초에 판매쿼터를 책정하기 때문에 월말까지 이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판매이윤을 단념하고 우선 건수만을 채울려고 서두르게 된다는것.

새차가 시중에 나온뒤 적어도 3개월동안 기다렸다가 흥정을 거는 것도 새차를 싸게 사는비결이다.

자동차딜러들은 신형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팔리지 않은 전년도 재고품을 정리하기 위해 대염가 판매를 실시, 자동차를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것처럼 선전한다.

카르코와 라이더의 조언은 이같은 선전에 넘어가지 말라는것.

신년도의 신형자동차가 나오기 직전에 전년도 모델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딜러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격이다. 딜러는 한해 묵은 자동차를 신형자동차가 나오기전에 팔수있게 되어 가슴이 후련할 뿐인 것이다.

작년형 새자동차를 싸게 사는 비결은 신형자동차가 시중에 나온 뒤에 사는 것이다.

작년형 새자동차를 살때는 무료정비 서비스를 받기에 편하도록 자기집에서 가까운 딜러를 선택한다.

딜러를 선택할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진열실 건축에 돈을 많이 들인 딜러나 광고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딜러는 피하는 것이다. 진열실 건축비용과 광고선전예산이 많을수록 자동차값도 높게 매기기 때문이다.

▲둘째비결

새자동차를 살때 자동차유리창에 붙어있는 스티커 가격대로 꼭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매가격 혹은 명세가격이라고도 불리우는 스티커가격은 자동차판매법상 새자동차가 팔릴때까지 유리창에 반드시 붙여 놓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딜러는 이보다 싼 값으로 팔수도 있으며 싸게 팔더라도 이윤을 남길수 있다.

자동차유리창에는 가끔 또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스티커가 첫번째 스티커 가격을 은폐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다. 두번째 스티커는 딜러가 구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다른 부속품들을 장치해 놓고 가격을 추가한 것이다.

스티커가격에는 세차, 왁스칠, 엔진조정등 딜러의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것.

이같은 서비스가 『딜러취급비』등 다른 엉뚱한 가격명세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셋째비결

스티커에 적혀있는 것은 모조리 읽어야한다. 어떤 단어들은 미리 인쇄되어 있지않고 나중에 타자기로 적어넣은것도 있다. 타자기로 추가한 단어들은 대개 표준장치와 공장에서 부착한 자유선택의 다른장치명칭 들이다.

표준소매가격과 구입자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장치도 포함한 조정가격사이에는 2천달러의 가격차이가 있다.

스티커가격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세가지 가격 명세는 판매세, 면허세 그리고 딜러의 서류수속비.

이중 서류수속비는 법률상 20달러를 초과할수 없다.

새차를 살때는 후일 다시 팔때의 가격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구조를 살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자동차핸들, 유리창, 좌석, 문잠을쇠등이다. 그러나 파워·안테나와 자동적으로 트렁크를 여는 장치등은 고려할필요가 없다. 사치스런 고급바퀴장식은 추후의 재판매용으로 고려할수 있으나 스틸·벨트타이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6기통엔진은 경제성이 더 좋기 때문에 8기통엔진보다 매매교환(TRADE-IN)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둘것.

▲넷째비결

세일즈맨 다음으로 부딪치게 되는 사람은 자동차 융자보험(F AND I)매니저다.

아무리 세일즈맨과의 흥정을 잘했어도 F AND I 매니저의 흥정에서 바가지를 쓰면 자동차 거래는 헛수고로 끝난다.

자동차융자 보험관계직원들의 수입원은 구입자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동차보험판매에 있다는것을 기억할것.

자동차융자이율과 보험료때문에 자동차가격이 구입자의 원래 예산을 초과할수도 있다.

다른 여러 은행과 접촉하여 보다 유리한 자동차융자를 알아보는 것이 상책이다.

▲다섯째비결

서명을 하는 계약서를 모두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 만약 세일즈맨이 계약서에 「장치된 대로(AS EQUIPPED)」따위의 문귀를 삽입했을때는 이를 용납하지 말것.

구입자선택자유의 조건으로 무슨 장치를 부착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는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 가운데 이해할수없는 조항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질문하도록.

주의깊게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양식들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보증서(WARRANTY)이다.

이보증서는 자동차제조업자가 보증한 것이지 딜러가 보증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딜러로 부터 보증기간동안은 무료정비서비스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구입시에 딜러에게 이점을 확실히 다짐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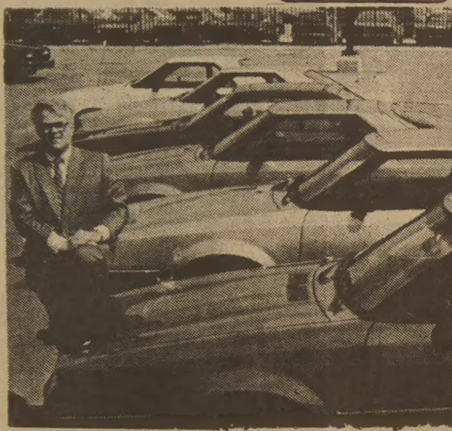
딜러와 흥정할때 기억해야할 점은 딜러가 차를 팔때 커다란 폭리를 남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딜러는 대당 10% 내지 20%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동차 판매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판매이윤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다섯가지 거래비결은 말하자면 딜러가 보이는 이 융통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셈이다.

①딜러방문은 월말에
②정가대로 지불말것
③후일 되팔때를 고려
④차보험도 요조심
⑤계약서 읽고 서명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㉜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후 한시간 후에 볼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올때 오텍도 함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가죽으로 된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툰드라를 지나오면서 배낭을 옆에끼고 마치 그속에 아주 귀중한것이 들어있어서 걸을때 흔들려서는 않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걸어왔다. 호기심이나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어보자 속으로 웅얼거리기만 하고 통 대답을 하려고 하지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채집가방에서 대여섯마리의 들쥐들을 꺼내어책상위에 올려 놓으니까 오텍은 얼굴을 찡그리고 어리둥절한 눈초리로 나를쳐다보았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혹시 덫에 친게 없더냐고 물어보았다. 갑자기 그는 생기가 돌면서 그의 보따리를 펴더니 잠싯동안 머뭇거리며 이끼에 정성들여 싼 작은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것을 건네주면서 그는 말한마디 없이 내가 끌러보는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쥐틀한개와 늑대발자국이 뚜렷이나있는 쵸코랫색갈의 흙덩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좀이해가 않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오텍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오텍은 매우 당황해가지고 입이 굳어져버렸다. 내가 완고하게 캐묻자 그는 벌벌떨더니 돌아서서 자기텐트로 가버렸다.

한참후에 이할미우트 사람중에 항상 그랬듯이 제일 직선적이고 숫기가 좋은 오호토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오텍이 준 이상한 트로피를 보여주면서 그게 무슨뜻이냐고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는 잠시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듯이 머뭇거리더니 이내 내가 알고싶어하는것을 알려주었다.

이 사건은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에스키모들의불투명한 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예가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지각보다부(富)를 더많이 가지고있는 불쌍한 나와같은 백인들에게 충고를 주고싶을때 이누이트 사람들이 보여주는 평장한 마음씨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다. 오텍이 나의 쥐덫을 돌아본후에내가 여우나 늑대를 잡지않을것이라는것이 마음아플정도로 그에게는 명백했던 것이다. 그는 백인들이 들쥐를 잡을 값어치가있거나혹은 이 작은 짐승들을 일부러 잡을려고 애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짓이오텍에게는 덫을놓는 기술적인 면에서볼때 말할수없이 빙충맞은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서로 의형제였기때문에 그렇게 덫을놓으면소용이 없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었고, 이러한 방법을 쓰면 내가 분개하지도 않고 또 바보처럼 느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오텍은 내가 작은 쥐덫옆에 큰 늑대발자국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눈치를 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오호토가 이 모든것을 설명하자 나는 어린애취급을 당한것 같아서 화가 났다. 오텍을 나의 캐빈으로 불러서 내가 왜 늑대가 아니고 작은쥐를 원하는지 장시간 설명을했다. 오텍은 내가 화가 잔뜩난것을 직감하고 박물관, 과학 그리고 내가잘 표현할수없는 백인사회의 다른현황들을 열심히 설명하자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듣고 앉아있었다.

내말을 듣고난후 오텍은 쥐덫뭉치를 하나 집어들고 바렌으로 후다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침이되자 내책상에는 다섯마리의 쥐가 놓여 있었지만 오텍은 쥐덫에 대하여나 나의 덫을놓는 기술을 고쳐 줄려고 애를쓰지도 않았고, 그것에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다. 억지로 했던 일이었지만내가 하는일에 참견을 했다는것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일이었고, 그가 한 것을 매우부끄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땅의 제일큰 법률이다. 즉 어느사람이나 자기일은 신성하게 자기의 일이다. 전체사회가위험을 느끼지 않는한 그것은 이웃이 전혀 간섭할 의무가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할때 도움을 않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계속)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GIFT취급
*생화, 조화, PLANTS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마·김

기 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CHARLES YU(유찰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E JEWELLERY 소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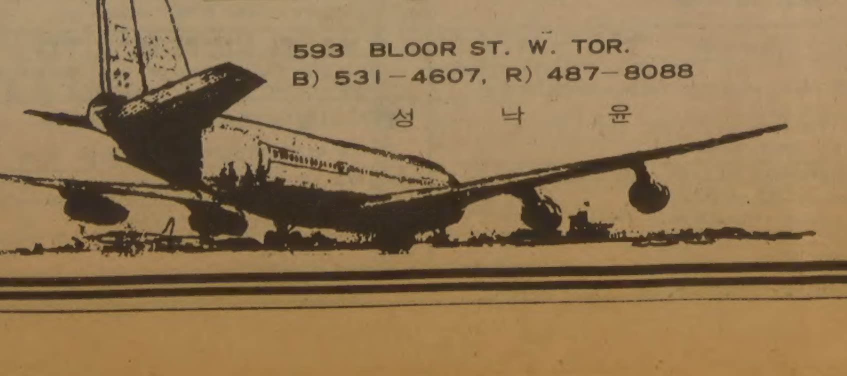
시민권 분실공고 :
박광순(PARK, KWANG SOON),
☎ : 534-0228, 1395 DAVENPORT RD.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문의처
본사 광고국 : 533-2361

민속촌 관광
서울행 단체 모집
출발 : 1981년11월3일, 29일
귀환 : 자 유
요금 : 특별요금
※선착순 접수중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판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재봉사 구함 :
FINCH & DUFFERIN
☎ : 636-8348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
미시사가 지역
☎ : 823-2445(R), 822-4895(B) 미스타 심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스카보로지역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얌전한 아기를 보아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SCARB. E. ☎ : 284-3031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매매및 양도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74년형 닷지 I 밴트럭 팝니다.
성능이 우수함
☎ : 248-4578 미스타 홍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CAR FOR SALE
'74 Green Vega $300
Phone416-762-3247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550
☎ : 523 : 7101(해밀톤)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친 ☎ : 745-5555

삐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 : 293-1893 (CALL 9AM~3PM)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빌딩매매 :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매매(PINBALL MACHINE)
성능좋은 ELECTRIC혹은 ELECTRONIC TYPE 14대
가격 개당 $275~$475.
☎ : 266-5037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그로서리
(맥주와 포도주 취급) 스토아를 급매코자함
주매상 : 5천3백달러이상 보장, 권리금 : 4만5천
+스탁(만달러 정도), 현금 : 2만5천
☎ : (514) 486-0944
(95% 영어지역)

도나스 샾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55 KENSINGTON AVE. Tor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메뉴펙츄얼 재고정리 세일 :
자꾸, 단추, 합사, 씽글바늘재봉틀, 아이들 겉옷들.
148 AUGUSTA AVE. 2층
☎ : 366-5439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A. M. F. M. 카셑(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 743-5669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ll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오릴리아 지역 하이웨이부근 : 레스트랑, 가스바
(3.9에이커 면적), 에어콘, 3베드룸아파트, 아스킹
$149,500
●오릴리아-배리 가스-스낵바 :
주요하이웨이, 에어콘시설.
$235,000+스탁
●오릴리아 버라이어티·기푸트SHOP
바쁜거리 3베드룸아파트, 엑스트라 가게,
렌트.: $125,000+스탁, 보다 더한
보다 더한 소식을 원하는분
☎ : 862-0788(Ex.) 53 WALTER CONSTABLE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A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망
햄버거, FISH & CHIPS, 스테이크 식당,
6일 매상 $2000(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ORTH MISSI.
☎ : 274-7010
CENTURY BURGER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서원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웅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인 벤 토 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3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넉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公職者가 책임지는 風土조성

全대통령 司正協議會에 行政활성화·不條理 제거지시

"不正부패 拔本意志 결여 일부無事安逸·行政능률저하"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모든 公職者가 소신있게 일하고 자기가 한일에대해 명확히 책임지는 「公職者사회책임풍토조성」을 위한 轉機를 마련해 행정을 活性化하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제거토록 하라』고 司正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司正협의회 전체회의에 즈음해 이같이 지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각部處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한과 책임은 그소재가 명확하도록 재조정하고▲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수있는 분위기 보장을위해 情實, 청탁,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공직자를 보호하며 ▲업무活性化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각급監査방향을 종래의 指摘·처벌위주에서 지도·계몽중점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인 행정풍토 확산을위해 소신있게 일한 공직자를 대거발굴, 褒賞할것등 4大지침을 시달했다.

4大지침示達

①權限과 責任소재를 明確하게
②情實·請託·압력배제所信보장
③지적 處罰監査 지도계몽으로
④所信 공직자 대거 발굴 褒賞

全대통령은 『아직도 각급기관장들의 自律에의해 부정부패를 기필코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며, 특히 일부공무원들은 無事安逸주의로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創意力감퇴, 행정절차의 硬直化, 행정능률의 低下등의 현상이 빚어지고있다』고지적,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주어진 권한을충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이에따른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것이며, 각 부처내에서 명확하고도 합리적으로 권한을分權化해 공직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上級기관이나 上司및 그주변 인물로부터의 違法, 不當한지시는 결코 존재할수없다』고 못박고 『이러한 사실을 모든 공무원이 확신할수있도록 철저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高位공직자는 자신은 물론 그 인척, 동창등 주변인물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철저히 정리, 단속해 자신의 취약요소를 과감히 제거, 下位職의 입무수행에 추호의 피해도 주지않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新職制 내달施行 金총무처長官

정부는 조직개편작업의 法制化작업을 수週內로 마무리하고 정부조직법개정안과 1백85개기관의 職制改正案을 마련, 오는 23일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이 전이라도 개정職制를 시행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職制案이 확정되면 오는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政府, 自律行政실천계획마련

下位職편중 責任추궁止揚

行政체계 모순是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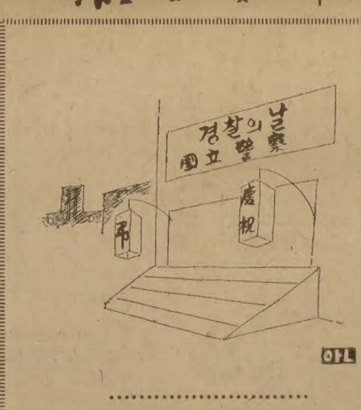
정부는 20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차 司正協議會 전체회의를 열고 自律的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고 부정과 비능률을 제거토록 시달한 全斗煥 대통령의 4大지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했다.

許三守청와대司正수석비서관주재로 지난5월14일 제4차회의이후 5개월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司正관계기관 및 각부처의 차관급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①불합리하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再설정, 下位層에 편중된 과도한 책임추궁과 감사를 시정하고②權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책임을 위로만 轉嫁하는 관습화된 모순점을 시정하며 ③委任 專決규정을 개정, 권한의 합리적인 分權化로 책임감을 부여토록하는 방안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도 소신껏 일한 공직자나 부조리척결에 垂範을보인 공직자를 대거발굴, ▲褒賞 ▲特進▲국내외시찰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각급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직원을 상대로 권한과 책임의식에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러한 세부계획의 실천을 위해 이날회의는▲각부처별로 자체감사전환계획을 오는11월30일까지 작성,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오는12월말 소신있게 일한 공직자들을 포상하며 ▲法令제도개선등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연구검토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司正 비서실은「자율적 행정을 통한 부조리제거방안」을, 감사원은「감사방향전환계획」, 총무처 내무부 상공부측에서는「권한과 책임의 철저한이행방안」을, 그리고 社會淨化委는「사회정화운동분석및 80년대정화기본정책방향」등을 각각 보고했다.



社會漫評

國會內務委

警察위신回復策·人權등 따져

河刑事사건등 高位層책임물어

국회內務委는 徐廷和내무장관과 柳興洙치안본부장, 朴在植서울市警국장등을 출석시킨가운데 20일 새벽0시50분까지 深夜회의를열고 河刑事의 예금증서절취와 女大生피살사건에 대한 보고를듣고 사건진상과 對策을추궁했다.

柳尚昊 玄敬大 金鍾載 丁時采(이상 民正) 徐淸源 吳洪錫 朴寬用 孫世一 柳畯相(이상 民韓) 李龍澤(國同) 趙炳奉의원(국민) 등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경찰의 越權행위와 人權유린수사의 예방과 개선을위한 對策▲실추된 경찰위신의 回復策▲경찰관의 생활보장을위한 처우개선대책▲수사비의 現實化등에 대해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尹노파사건이나 女大生 피살사건수사 시 용의자를 고문하지 않았는가』고 묻고 『治安유지 최고책임자는 이번사건에 책임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徐廷和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河刑事개인의 罪責感보다 더큰 罪責感을 느끼며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表한다』고 사과하고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원들이 납득할수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철저히 책임질것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柳興洙치안본부장은 『현재의 수사방법이 人權면에서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人權을 소홀히하는 일이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수사비를 現實化하기위해 82년도 追更예산안에 구체적인 조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河刑事의 犯行에 대해 『어디까지나 單獨犯行이며 통장을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있다』고 밝혔다.

88五輪 全世界참여케

國會12개常委 질문·답변

국회는 20일하오 운영위를 제외한 12개常委를 일제히열고 소관부처별로 現況보고를 듣고 外務등 일부常委에서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外務委 盧信永외무장관은 『88년 서울올림픽에 세계모든 국가가 참가할수있도록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고있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어 『멕시코에서 열리는 南北頂上회담에 우리가 참가하지않은것은 利益될것이 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統一敎와 敎主인 文鮮明목사문제는 우리정부로서는 하나의 종교단체로서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文목사에대한 美국내법저촉문제에언급, 『종교단체가 그나라 법률을 어기면 그나라 법에따라 다스려지기를바라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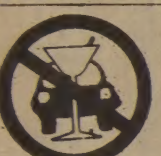
盧장관은 『韓美관계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없지만 혹시 어떤문제점이 일어날수있는 가능성에대해 미리 예상하여 사전에 관계악화를 방지하는것이 정부의방침』이라고 밝히고 『일부에서 韓美간의 문제점으로 어떤 종교단체에 관한것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있지만 우리정부의입장은 美國朝野에서 알고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본다』고 樂觀을 표했다.

이날 金敬九·許景九(이상 民韓) 李慶浩의원(民正)등은 정책질의를통해 ▲非同盟外交 ▲88년 서울올림픽의 共産圈 참여對備策 ▲韓日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中共의방응등에관해 물었다.

法司委 金永均 법제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法令정비의 심사기준에는 민주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金처장은 이날 朴炳一의원(民韓)이 『성장발전저해요인에는 비민주적인요인도 포함되어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성장발전저해요인을 폭넓게 국가발전저해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주제도의 발전저해요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모든法令이 검토대상이 되기때문에 立法會議에서 제정된 10여건의 법률도 심사대상에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法制處관계자는 정부가 심사중인 10여건의 立法會議制定 改正법률은 改革立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兵役法 전과관리법 등이라고 밝혔다.



經科委 李正五과기처장관은 업무현황보고를통해 『민간부문의 기술도입촉진을위해 현재정부認可제로 되어있는 기술도입절차를 대폭완화하여 계약기간3년, 기술료3%, 정액료30만달러이하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한국은행신고제로 바꾸고 86년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民韓 "國政調査權 거부되면 관계長官 引責요구"

民韓黨은 20일 상오 黨務회의를 열고 국회內務委와商工委에서 다룬 경찰관 瀆職사건과 人權문제, 低價연탄문제에 대한 처리방법등을 논의한 끝에 民韓黨이 요구한 國政調査權발동이 거부될 경우 관계국무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후 金彦培대변인은 『21일의 총무회담에서 引責문제등을 논의하고 22일 운영위에서 國政調査權발동과 관련된 제의안을 다루기때문에 그결과에따라 黨論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만약 國政調査特委구성등이 거부될경우 民韓黨은 독자적으로 관계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치적책임의 限界에 대해 『그것은 解任건의안이 될수도있고 경고도될수있다』고 밝히고 『民韓黨은 他黨이 國政調査權발동에 동조해줄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與野 3黨총무 오늘懸案협의

民正, 民韓, 국민등의 3黨총무는 21일 총무회담을갖고 國會內務·商工委가 다룬 경찰관瀆職과 低質 연탄사건등에 관련된 처리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국회운영대책을 협의한다.

高在淸 民韓黨총무는 이날 회담에서는 秋穀收買價를 다루기위해 국회農水산위 연석회의의 召集문제등은 물론 黨政同友會가 『國政調査權발동을 요구하고 있는 醬油米문제도 다루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表情의 徐內務·柳치안본부장 경찰의威信을 失墜시킨 河형사사건으로 국회에불려나온 경찰최고책임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심각하다. 19일밤 內務委에서 徐廷和내무장관(左)과 柳興洙치안본부장이 답변내용을 의논하고있다.

국제식품연구소 發表

遺傳子조작한 變種 改良씨앗 곧市販

【산카를로스(캘리포니아주) 20日UPI聯合=특약】 유전자조작기술로 개발한새로운 변종개량 씨앗이 유럽및 북미시장에서새상품으로 곧 등장하게될것이라고 산카를로스의국제식품연구소(IPRI)가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다수확·고영양가이며 전염병에 강한 밀 보리 옥수수등 각종 농산물의 우수한 종자를 개발·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클레이스·러크라는 한 프랑스농산물회사와 공동으로 종자를 개발·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말했다.

마린·맬튼IPRI소장은 『이같은 합의는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을 이용,종자를 개발하는 것에 유럽농산물종자회사들이 중요성을 두고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있다』고 말했다.

필립·클레이스·러크사장은 『유전자공학의 개발은 현대 농업분야에서 식량증산뿐아니라 에너지와 비료의 소비를 줄이는데 공헌할것이다』라고 밝혔다.

地平線

연탄을 하루 두장갈이로 질을 높인다고 한다. 저질탄을 꾸짖는 주부들의 아우성에 못이겨 기준열량도 내년여름까지는 4천6백칼로리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바깥 분들은 이해못합니다, 연탄불이 꺼질까봐 하루에도 수십번 화독뚜껑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고생을. 연탄가스에 몽롱하게 취한 주부들이 연탄을갈기위해 밤잠을 설치는 고통을 연탄안때는 양반들은 모릅니다』—저질연탄 파동이 터지자 한결같이 내뱉는 주부들의 이런소리에 저질탄이 탈바꿈하게 된것이다. 하나 알고보면 연탄의 질에 관한 기록이 옛날에도있고 우리의 石炭산업은 零細하고 前近代的이며 그나마 採炭層이 자꾸만 얇아져 애로가 이만저만 아닌것 또한 사실이다. ▼연탄하면 해방후의산물로 알지만 예전부터 石炭을 明煤, 碎煤, 末煤로 가른것을보면 연탄이용방법이 있었던것 같다. 먼저 明煤는 큰덩어리로 한번 불붙으면 꺼지지를 않는다. 碎煤는 炊事나 용광로용으로 썼는데 물에일단적셨다가 불을 세게붙여주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조개炭, 코크스, 塊炭인지 모른다. 밀가루같이 반죽하는 末煤=粉炭은 진흙으로 떡처럼 빚어서 화덕에 넣던 찌꺼기탄이다. 여간해선 잘 꺼지지 않았다니 질은 지금보다 좋았던것이 확실하다. ▼또 탄전을 처음 발견하면 옛날엔 대나무통을 꽂아 毒煙을 뽑았는데 아마 메탄가스를 피했던 성 싶다. 이 메탄가스는 구리고 어지럽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용도가 많은 에너지로 될수 있다. 코넬대학의 토머스·골드박사는 지구 내부에는 전세계의 에너지를 수세기동안 감당할수있는 충분한 메탄가스가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지진이 날 때 메기나 새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땅이 흔들리는것을 느끼기보다는 메탄 냄새를 먼저 맡을 수있기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우리 땅덩어리에 무진장하게 깔려있는 메탄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기면 연탄걱정을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따지고보면 석탄과 석유는 형제같은것이고 水素含量이 모자랄뿐이다. 석탄을 가솔린처럼 만드는 가솔린 연구가 외국에선 한창이다. 미국서는 벌써 石炭1톤에서 하루3배럴의 석유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아직 생산코스트가 높지만 기름값이 마구 올라가면 가솔 시대가 오지않을까 보여진다. 저질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버력(無級炭)이라도 장래엔 가솔로 소중해질 날이 올 가능성을 뜻한다. 석유가 안난다고 비관만할것이 아니라 뭣이든지 활용해서 쓰는 지혜만은 조상한테 배워야 될 지모른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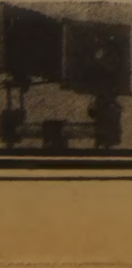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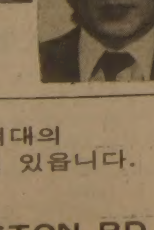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5
은 : 온스당
US 9.6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을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심으로 본 김용순 무용연구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및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많은 성장을 모국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국공연을 계획하고 무용단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연습시작 : 11월7일(첫토요일)
1982년도 계획
6월 : 제3회 무용발표회
7월 : 한국방문및 공연
12월 : 자선 공연
문의전화 : 751-8891(오후7시이후)

FINE DESIGN
INTERIORS
•GRAPHICS
기능적이며 능률과 효과있는 영업장소를 설계하여 드리며, 아늑한 가정분위기를 꾸며드리는 실내 장식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요구에 충족하는 디자인과 공사를 자신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에델하우스와 코아그룹운영(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작품
오리지널·리 의상실 ■ 김 보석상 ■ 명동장 ■ 파라다이스 선장 ■ 오나시스의 35여 영업장소
동신교회 실내 ■ 서울공대 채플실내 ■ 단국대 도서관 휴게실
연대 커피하우스및 행사무대디자인 ■ 이대 문리대 휴게실및
메이데이 축제디자인 ■ 기타 부유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조 덕남 622•5328

그리스左派執權…나토脫退공약에
美선 唐慌…蘇선 喝采
南지중해 對蘇방위 헛점
蘇선"美撤收땐報答"추파
希의 이익·地位 최대한 높히려는 底意깔려

◇독립전쟁再燃장면지켜보는 레이건과미테랑
레이건美國대통령과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19일 美國독립전쟁당시의 전투장면이 재연되고있는 버지니아州 요크타운을 방문하고 있다。【요크타운(버지니아州) 19日AP誌=聯合】

올들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그리스에 좌파정권이 등장하자 미국도 당혹하고 소련은 쾌재를 부르고있다。그리스 사회운동당(PASOK)의 집권에 유럽과 서유럽제국이 당혹한것은 親蘇노선의 PASOK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공동체(EC)의 탈퇴를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때문이다。

만일 파판드루가 선거공약대로 그리스가 유럽통합군체제에 참여를거부하는경우 서방측은 지중해남부 對蘇방위망에 구멍이 뚫리는 불리한 사태에 직면하게된다。

특히 퍼싱Ⅱ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를 앞두고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리스내의 4개미군기지 철수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을 급히 세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좌파정권의 집권에 소련이 쾌재를 부르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소련의 노브스티통신은 새그리스정부가 그리스내 나토기지를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경우 소련은 이에 보답할것이라고 추파를 던졌다。소련은 구체적으로 특별조약을 체결할수있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PASOK의 선거공약은 의회의 결의가 있어도 카라만리스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얻어야하기때문에 실현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파판드루는 선거승리후 기자회견에서『미군기지에 저장된 핵미사일의 철수는 절대적인것』이라고 말해 그리스내 핵무기 배치반대의 사를 분명히했다。

그러나 그는『미국이 최신무기등 군사원조를 강화한다면 그리스는 나토탈퇴를 재고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져 PASOK의 선거공약이 서방과의 관계에서 그리스의 이익과 지위를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계산된 선언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있다。

파판드루의 새정권도 앞으로 키프로스문제와 에게해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터키와 새로운 분쟁이 개시될 가능성을 보이고있다。

그리스와 터키사이의 에게해에 있는 3천개의 섬이 自國領임을들어 그리스는 에게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이 영유권시비는 에게해를 포기할 경우 내륙국의 신세가되는 터키와 지난 76년8월 전쟁일보직전의 사태까지 몰고갔다。

그리스가 나토를 탈퇴하려는 배경에는 지난 74년8월 키프로스분쟁으로인한 터키와의전쟁과 76년의 에게해분쟁당시 미국등 나토회원국이 그리스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그리스는 이때문에 키프로스분쟁으로 75년 나토에서탈퇴했다가 6년만인 80년10월 복귀했다。

EC탈퇴문제는 파판드루가 영도한PASOK의 승리가 34.4%에달하는 농민들의지지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그리스는 81년 10번째 EC회원국이 되었으나 농산물가격을 높은EC수준에 맞추어야되고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연25%에달하는 인플레가 더욱 가속화하는등 많은 댓가를 치러야했다。

그리스좌파정권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실리적 손실에 대한 반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西方측이 그리스를 안에 붙잡아두려면 까다로운 幕前幕後 공작이 필요할것같다。【申相頊기자】

希、美의 즉각撤收요구안해
對美政策에 충격적 복안도 없어

【워싱턴19日=聯合】반미、반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책을 내걸고 18일 총선에서 승리한 그리스 사회주의운동당의 안드레아스·파판드루 당수는 1일밤 그리스내의 4개 미군기지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판드루당수는 미국 ABC·TV와의 회견에서 그러나 신정부는 그리스영토내에 비축된 미국의 단거리 핵탄두를 철거하도록 조속히 요청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운동당이 미국에 놀라움을 안겨줄 충격적인 정책을 갖고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미국국민과 미국정부에 이를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프칸 反政軍、카불근교서
蘇 高位고문관 납치
蘇선 政治犯과 交換제의

【페샤워트(파키스탄)19日=UPI聯合】아프가니스탄회교반군들은 이달초 수도 카불근교에서 한「고위」소련인 기술고문관을 납치했다고 회교반군소식통들이19일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측이 수백명의 정치범들과 교환조건으로 이 고문관의 석방을 제의했으나 반군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아프간산업 광산성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소련인고문관이 지난4일 카불근교에서 반군조직가운데 하나인 헤즈베·이슬라미에 의해 납치됐으며 『소련측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것 같다』고 말했다。

나의 이력서
〈鵝宇 尹 致 暎〉 윤치영 ⑬

駐佛특명公使
51년8월하순 피난지 大邱서 임명돼
「公務外 돈 아껴쓰겠다」李박사에 覺書

戰勢는 계속 기울어 정부는 임시 수도를 大田에서 大邱로 옮긴뒤 다시 8월중순께는 釜山으로 옮겼다。李承晩 대통령은 大邱로 옮기기 직전 내무장관에 趙炳玉을 임명했다。戰亂중의 내무장관이란 고달픈 직책을 맡은 趙炳玉은 치안보다는 국방에 나서야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다。

8월7일엔 해리먼美 대통령특사가 戰況을 알아보러 내한했다。그때쯤 馬山지역에선 공산군에대해 일대 반격전이 벌어졌다。킨作戰이었다。戰線은 洛東江줄기를 싸고 南北으로 대치된 채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었다。공산군의 공격은 극에 달했고 국군의 반격은 더욱 치열했다。이 민족에게는 가슴이 타들어 가는 가장 길고도 긴 여름이었다。

그런던 8월하순의 어느날, 梁聖奉 경남도지사가 나를 찾아와 李대통령이 급히 찾고 있다는 전갈을 하고갔다。

大邱로 가서 李 대통령을 만났다。李 대통령은 나에게 『프랑스주재全權特命公使(大使자격)로 부임해 외교활동을 벌이라』는 지시였다。특히 유엔과 유럽지역에서 유력한 실력자인 슈만과 접촉, 對韓지원의 국제여론을 형성시키라는 당부를했다。당시 프랑스外相인 슈만은 유럽외교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존재였다。그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벌이는것은 국제무대에서 對韓지원의 폭을 넓히는 지름길이라고 李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이다。

또 유럽을무대로한 외교는 미국일변도의 외교를벗어나 한국에대한 인식과 지지를확대하는 길이라고믿고있었다。老軀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를보는 그의 「외교의 눈」은 날카롭고 번뜩이고 있었다。

李 대통령은 나에게 任地인 파리로 가기전에 美洲에 들러 외교활동을 지원하라고 일렀다。당시 張勉駐美대사는 무척이나 바빠 혼자힘으로는 외교를 감당못할정도였다。

내가 떠나기전 李 대통령은 느닷없이 『覺書하나 써놓고 가라』고말했다。『무슨 각서말입니까』고 반문하니 그는『나가서 요리집같은데 다니며 외상지지않고 방탕한행동을 절대 삼간다는 약속말이야』라고말했다。

『안쓰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안돼。꼭 써놓고 가』하며 정색을하고 말했다。하는수 없이 『公務에 관계된것 이외에는 절대 비용을 안들이겠다』는 각서를썼다。각서를 내미니 李 대통령은 웃으며 趙炳玉얘기를 했다。건국직후 趙炳玉이 巡廻대사로나갈때 돈을 아껴쓰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외국에서 술값등 3천5백달러를 빚지고 돌아왔으니 그 전철을 밟지말라는 당부였다。

유엔軍의 參戰으로 반격의 돌파구가 뚫리면서 戰勢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월7일 소련이낸 한국에서의 유엔군철수안을 부결시켰다。10여일뒤에는 林炳稷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대표단이 유엔제5차총회에 파견됐다。안팎에서 北進공세와 외교공세가동시에 전개된 것이다。

9월하순 드디어 맥아더원수가지휘하는 연합군이 仁川상륙작전을감행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보고서야 나는 釜山에서 美軍用 함정을 타고일본으로 떠났다。그 배는 부산지구 항만사령부에서 특별히 알선해준것이었다。외교관으로서의 부임길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어린 아들 仁善을 데리고 같이 떠났다。대사의부임이라고는하나 우리가족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나는 카키색 군복차림이었고 아내도 카키복을걸쳐 입었으니 피난민행색 그대로였다。

배가 사세보(佐世保)港에 잠시 寄港했을때 나는 그곳에서 한국전선으로 떠나는 美軍과 영국軍부대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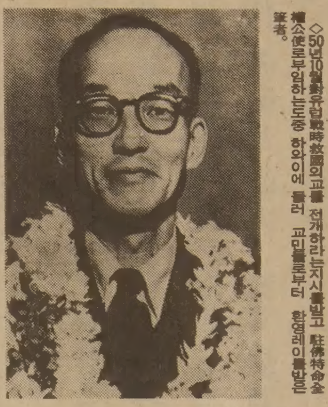
함정이 요꼬하마港에 들어가자, 요꼬하마에서 나는 맥아더사령부가 알선해준 기차편으로 東京으로 갔다。東京에선 駐日대표부사람들과 製粉회사를 하던 盧榮漢씨등이 날 영접했다。프랑스대사는 자기나라에 부임하는 날위해 특별히 만찬을 베풀어주었다。

그때 東京에는 英親王 李垠公도 나와 있었고 法部大臣을 비롯한 일본정계 중진등 1백여명이 참석, 뜻밖의 성대한 만찬에는 우를 받았다。지난날 이 민족을 강압하던 日人들에게 이젠 외교관대우를 받고있다고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다。

東京에서는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원수를 예방, 우리정부의 謝意를 전하고 맥아더장군의 極東전략을 지지하는 방송도 했다。맥아더원수는 이번기회에 北傀軍을 섬멸,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또 各國대사들을만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다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있는 차에 아내가 병이 났다。10일간을 묵으면서 차도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낫질않았다。하는 수 없이 친지에게 아내와 아들을 당분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는 나혼자 미국으로 떠났다。

도중에 하와이에 들렀다。李박사와 옛날 독립활동을 하던 그 땅을 25년만에 밟으니 감개가 무량했다。하와이에선 梁裕燦(前駐美大使)金永琦(前駐伊大使)등을 만나 앞으로의 우리 외교의 방향을 논의한뒤 美本土로 건너갔다。



◇50년10월對유럽戰時救國외교를 전개하라는지시를받고 駐佛特命全權公使로부임하는도중 하와이에 들러 교민들로부터 환영레이를받은 筆者。

波、非黨員도 入閣
야루젤스키 國防評議會 소집
"對決땐 양보없다"警告

【바르샤바19日UPI=聯合】신임 폴란드 共産黨 제1서기 야루젤스키는 모스크바 당국이 폴란드 국내질서유지를 촉구한데이어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가 새로운「분쟁 폭발」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19일 강력한 국방평의회를 소집했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는또 한 폴란드주재 바르샤바 조약국大使들과도 연쇄회담을 갖고 바르샤바 조약국에대한 지원을 다짐했다。폴란드의 관영 PAP통신은 야루젤스키 당제1서기가 그의 국방상직에 따른 국방평의회 의장으로서 국방평의회를 소집했으며 국방평의회는 지난주말 당중앙위원회회의가 현 국내사태와 관련하여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軍部가 수행할 임무를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야루젤스키는 자유노조와의 회담이 폴란드경제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면서 새내각에는 非공산당원과 가톨릭교도도 입각시킬것이라고 밝히고 곧 당중앙위회의를 소집、당정치국과 내각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벨기에서 爆發惨事
유태人商店 30여명부상

【안트워프(벨기에)20日聯合】안트워프의 유태인들이 경영하는 다이어먼드 무역상에서 20일 폭발사고가 발생、30여명이 총상을입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사고가 폭탄을장치한 자동차에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올 노벨物理·化學賞 발표
物理 美 두敎授 瑞典人 1명 共同受賞
化學 波태생 호프만·日 후꾸이 敎授에

【스톡홀름19日AP=聯合】美하버드대학의 니콜라스·블룸버겐교수(61)및 스탠퍼드대학의 아더·숄로우교수(61)등 2명의 미국인과 스웨덴의 카이·시그반교수(63)가 금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화학상의 영예는 폴란드출신의 美코넬대학교수 로알드·호프만박사(44)및 일본 교오또(京都)대학의 후꾸이·겐이찌교수(63)에게 돌아갔다고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19일 발표했다。

과학원은 블룸버겐、숄로우두교수가 레이저분광학 발전에、스웨덴 웁살라대학에재직중인 시그반교수가 고해상전자 분광학부문에 각각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지명됐다고 말하고 총상금 18만달러중 절반이 시그반교수에게、그나머지가 두美교수에게 돌아가게 될것이라고밝혔다。

과학원은 호프만과 후꾸이 두교수가 화학반응과정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각각 개발한 공로로 화학상공동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하고두사람에게 총상금 18만달러의절반씩이 수여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901년 노벨상이 수상되기시작한이래 모두 45명의 물리학상수상자(총수상자 1백20명)및 25명의 화학상수상자(총수상자 97명)를 냈으며 스웨덴은 4번째 물리학상 수상자를, 日本은 6번째 노벨상수상자를 각각 배출해냈다。

"指導層개편으로 폴란드事態好轉"
바웬사 파리서會見

【파리19日=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는 19일 폴란드지도층개편이 국내사태를 호전시킬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亞太國 경제樂觀
韓國 회복세進入 美誌 전망

【워싱턴19日=聯合】한국을비롯한 아시아태평양연안국들은 근래 경기회복으로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과시하고있는 반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우울한경제전망을 안고있다고 미국의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엔드·월드·리포트지가 19일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메아리
素月의 勳章

흔히 「한과 애수의 시인」이라고도 하고「설움과 별리의 시인」으로 불리던 素月 金廷湜에게 올해 문화훈장 금관장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 신문학 70년사상 가장많이 사람들에 의해 읊조려진 국민시인에게 사후 46주년만에문화훈장이 수여되었다고 하는것은 막상 서훈의결정소식을 듣고 생각하면 오히려 때가 늦은감마저 있다。그의 시는 우리겨레의 한을 고유한 민요적 시형에담아 승화시켜서 누구나가 쉽게 읊조릴수 있었고또 공감의 폭도 넓었다。그는 1902년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났다。소월의 총명은 어릴적부터 남달라 7세에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나이 어린데도 항상 우등을하여 남에뛰어났다。

그는1916년오산학교에진학해서는고당조만식교장으로부터 장래가 촉망된다하여 사랑을 받았으며 이때 스승 안서 김억의 주선으로「창조」지에「낭인의 봄」「야의 우적」「그리워」등 일련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단에 등장했다。

1922년 배재고보에 진학한 소월은「개벽」에「금잔디」「엄마야 누나야」「진달래 꽃」등 그의 주옥같은 대표작들을 마치 누에가 꼬치를 치듯 술술이 읊조렸다。

배재고보를 마친 소월은 1923년 동경상대로 유학을 갔으나 가세가 기울어 중도에 귀국하고는 시작에만 몰두했다가 1934년12월24일 다량의아편을마시고 33세의 목숨을 스스로의손으로 끊는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허공중에 헤어 진 이름이여!/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초혼」에서의 외침 그대로 소월은 전통적인 겨레의 한을 피맺히게 노래부르다가 젊어서 죽었으나 그의 시와 이름은 날로 새롭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그런대로 한세상 지내시구려/사노라면 잊힐날 있으리라/〉했던〈못잊어〉의 한귀절 처럼 소월은 신문학사에서 오래도록〈못 잊어 생각이 나는〉이름임이 이번 서훈으로도 반증 되었다。

男子=장래성·임금·福祉
女子=福祉·임금·장래성
行動科學硏、근로자轉職要因 조사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轉職할 경우 그 사유로서 남자는 장래성·임금·후생복지등을、그리고 여자는 후생복지·임금·장래성등의 순으로 들고있어 종업원轉職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조직적인 動因에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韓國행동과학연구소가 1백여개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자전직요인분석에 따르면 전직 의사를 가진 남자가운데 24.7%가 장래성을、22.5%는 임금、17.3%가 후생복지를 전직이유로 들고있어 남자근로자는 장래성여부가 전직의 가장큰 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후생복지가 29.8%、임금23.7%、장래성17.3%의 순이어서 남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전직이유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은 장래성31.1%、임금18.5%의 순으로 크게 장래성이 전직 여부를 좌우하는 반면 생산직은 임금27.4%、장래성19.5%로 임금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文化短信

英·美서 6개월간

■姜駿赫·孫振策·尹浩鎭·曺圭鉉씨=문예진흥원이 주관하는 82년도 해외연수생으로 姜(소극장공간사랑운영인·극장운영부문)孫(극단민예연출가·연출)尹(극단실험연출가·연출)曺씨(남성무용수·안무)가 각각 결정되었다。

리처드·놀招請공연

미국오페라계의 정상 테너 리처드·놀초청공연이 27일 하오7시 숭의음악당에서 열린다。피아노협연 서계령。레퍼터리는 아르네의「코무스중의 아리아」·헨델의 가극「아프리카의 여인중에서 오 낙원이여!」토스티의「귀여운 입술」등。

梨大음악관國樂祭

이화여대 음악관 신축기념「국악제」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새로지은 음악관에서 열린다。공연일정은 ▲26일(하오3시·7시)=제3회 국악과정기연주회 ▲27일(7시)=黃秉冀가야금곡의밤 ▲28일(7시)=교수 음악회·영산회상 ▲29일(7시)=민속악·金竹坡 金素姬 ▲30일(7시)=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국악 ▲31일(2시)=국립국악원·아악。

物理學賞 — 레이저·電子分光學연구認定

올 노벨物理學賞은 物質의 原子와 分子의 에너지상태등을 보다 상세히 알아낼수 있도록한 레이저및 電子 分光學연구에 공이 큰 블룸버겐과 숄로우및 시그반에게 돌아갔다。

분광학이란 物質과 輻射사이의 상호관계에대한 이론및 해석을 다루는 物理學의 한 분야이다。

블룸버겐은 레이저分光學을 연구하며 物質의 非線型특성을 알아내 이로부터 간접적으로 레이저光에 情報를 실어 보내는 光通信분야의발전에 크게기여한 공로이다。

한편 숄로우는 58년 타운스와 함께 레이저의 이론을 세운 레이저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숄로우는 그후 20여년간레이저분야의 연구를 해왔다。

레이저(LASER)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첫머리자를 딴것으로 誘導 輻射에 의한 光增幅을 뜻한다。레이저光은 波長 즉 色이똑같고 波動의마루와 골이 꼭맞아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레이저光은 이같은 특성때문에 빛은 질서 정연하게 앞으로 곧장 뻗어 나가게 되며 빛에너지가 확산되지 않는다。이때문에 레이저光은 光通信을비롯、정밀측정、미세수술과암치료에서 군사적으로 미사일요격용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용의 길이 열리고 있다。

시그반은 고분해능 電子分光學을 발전시켜 물질의원자와 분자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데 크게기여했다。

한편 한국科學技術院 李相洙교수(光學)는 지난 9월초 파리에서 열린 국제물리학회 총회에 참가、이들3명의 수상자를 만나 보았다며 이들은 응용보다는 기초분야의 연구로 올 노벨물리학상을 타게되었다고 말했다。

化學賞 — 有機化學반응 理論바탕마련

(解說)

올 노벨化學賞은 복잡한유기화학반응을 간단한 공식에 의해 앞으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호프만과 후꾸이(福井)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한 이론은 이미 60년대에 발표돼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복잡한 유기화학반응을 궤도함수론을 이용、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론화한것이다。후꾸이는 독자적으로 이분야를 연구、호프만은 궤도함수대칭론(Orbital Symmetry)으로、후꾸이는 境界궤도함수론(Frontier Orbital Theory)으로 발전시켰다。

모두 陽子化學이론에 바탕을둔것으로 궤도함수대칭론은 분자의 대칭적인 요소를 응용、유기화학반응을 일반화시킨 것이며、境界궤도함수론은분자상호간의電子的인상태를 규명、반응을 예측해내는 것이다。따라서 이론의출발은 다르나 결과는 거의 같은것으로됐다。

후꾸이씨는 대한화학회의 초청으로 지난8월과 3년전 내한한적이 있다。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徐正憲교수는『유기화학에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공로를세운 업적』이라며『더 나아가서 생명현상의 화학적 반응에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할수있는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科學技術院 金武植교수는 후꾸이교수는 80년도 국제陽子化學會회장을 역임한 일본의 대화학자로 이미 작년 유력한 노벨化學賞후보에 오른적이 있다고 했다。【과학부】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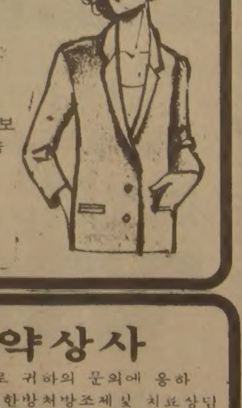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주간女性
10월 25일자
인기절찬 판매중!
사랑의테마 特輯「남편 外道」
국민훈장 탄 雪嶽山 파수꾼
올림픽 마크 그린 李權文씨
컬러畵報 미용 新體操 특집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밭식품포함)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大學야구 中央·東亞 覇權다툼

9회말 野選으로 決勝點 東亞
朴明雲 다시決勝打 날려 中央

◇決勝點 올리는 순간 中央大 9회말 1死후 공격에서 우중월2루타로나간 桂東植이 6번 朴明雲의 중전적시타로 결승점을 올리고 있다。

中央大와 東亞大가 금년 대학 야구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제36회 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 진출, 패권을 겨루게됐다。 中央大 6번타자 朴明雲은 円光大와의 준준결승에서 9회말 결승홈런을 날린데이어 2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강적 漢陽大와의 준결승서도 9회말 1死후 3—2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전결승타를 날려 中央大를 결승으로 이끌어 올렸다。 대학 정상급스타들을 가진 강호 漢陽大는 1회말 선발 金勇權의 실책으로 中央大에 선제 2점을 허용하고 中央大의 우완 金龍洙의 역투에 눌려 석패, 금년 한번도 우승 문턱을 밟지못했다。

東亞大는 9회말 1死만루에서 4번朴榮泰가 내야로 굴린 타구가 야수선택으로 처리되며 결승점을 기록, 안타수 3—6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高麗大에 2—1로 승리, 금년 釜山시장기, 추계리그에 이어 3번째 타이틀을 노리게 됐다。

中央의 金龍洙는 위력적인 스피드로 분투, 漢陽大의 강타선을 선발했다。 국가대표팀 선두타자인 金一權을 비롯, 鄭宗鉉·吳大錫·李萬洙·李根植등 폭발력을 자랑하는 漢陽大타선은 1회초와 5회초 각1안타씩을 기록했을뿐 이렇다할 득점찬스를 만들지못했다。

시즌내내 부진했던 中央은 이번대회에서 노히트노런의 대기록을 세웠던 漢陽大선발 金勇權을 1회에 적공,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 1회말 선두1번 郭敬卓이 포볼을 고르고 2번 金李錫이 2루앞 내야안타를 때린후 3번 金鍾根이 보내기번트를 시도, 漢大투수 金勇權은 이를 잡아 3루에 악송구하는 판단미스로 中央은 불로소득의 1점을얻고 1死후5번 桂東植이 세터희생플라이로 선제 2점을 기록했다。

7회까지 2—0으로 뒤지던 漢陽은 8회초 선두 1번 金一權의 내야안타, 2번 鄭宗鉉의 좌월 2루타, 3번 吳大錫의 좌전적시타로 2점을 만회하고 5번 李萬洙의 1死1, 2루 병살타로 동점에 그쳤다。 뒤쫓기던 中央은 9회말 마지막 공격 1死후 桂東植이 중월2루타로 돌파구를 열고 6번 朴明雲이 두게임째 연속 결승타를 터뜨려 3—2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제5일 준결승

한양대	000	000	020	2
중앙대	200	000	001	3
고려대	000	000	100	1
동아대	000	010	001	2

秋季 대학축구
關東大、강호 國民大격파
張五鳳·金漢權득점、8強토너에
2—1

關東大는 20일 효창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7회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4일째 D조 예선 경기에서 張五鳳(전반16분) 金漢權(후반37분)의 득점으로 강호 國民大를 2—1로 물리쳐 2연승을 기록, 21일 東國大와의 예선마지막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8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 진출권을 얻었다。

D조의 東國大는 장신 FW 孫七模(1m86)가 해트트릭(3골)을 기록하며 仁川體專을 6—3으로 물리쳐 1승1무를 마크했다。 B조의 慶熙大—檀國大경기는 0—0으로 끝났다。

◇門前대시 D조 東國大와 仁川體專의 열전。 전반에서 東國大의장신 FW 孫七模가 仁川體專 문전으로 대시해 들어가고 있다。 孫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제4일전적
▲D조
관동대 2(1—1 1—0)1 국민대 (2승) (1무1패)
동국대 6(2—1 4—2)3 인천체전 (1승1무) (2패)
▲B조
경희대 0(0—0 0—0)0 단국대 (2무) (2무)
광운공대 0—0 건국대 (2무) (2무)

忠北道廳 첫覇權차지
전국團體유도 鐵道廳 5-0으로 完破

大學部는 東亞、高等部선 啓聖이2연패

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단체 유도대회가 20일 잠실 학생체육관서 열려 일반부서 忠北道廳은 5—0으로 鐵道廳을 완파하고 우승, 첫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대학부서 東亞大는 漢陽大를 3—2로 꺾고 우승했으며, 고등부서 啓聖高는 飛鳳高를 3—2로 제압, 2연패했다。

◇각부결승전
▲일반 충북도청 5—0 철도청A
▲대학 동아대 3—2 한양대
▲고등 대구계성 3—2 경기비봉
▲중등 대구중앙중 4—1 조양중

세계J女子핸드볼
한국、決勝리그 進出
38-11로 美 大破 2승1패기록

캐나다 몬트리올서 열리고 있는 81년도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서 B조에 속해있는 한국은 38—11로 美國을 대파하고 2승1패를 기록, 유고에 이어 B조2위로 결승리그에 진출했다고 20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은 전반서 21—2로 美國을 일방적으로 공략, 승부를 결정지은후 38—11로 낙승했다。

◇3차전
▲한국 38(17—9 21—2)11 미국 (2승1패) (3패)

團體운영 大幅개선 내년 慶南體典부터

대한체육회는 내년 慶南전국체전부터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을 세웠다。

체육회는 지난15일끝난 제62회 전국체전에서발생한 폭력사태와 대회운영의 문제점등을 분석, 오는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원만히 치를수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맹경기단체및 시도지부에대해 오는28일까지 전국체전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시달했다。 체육회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반영키로했다。

세계태권聯盟 태권대회 開催地 에콰도르로 變更

세계태권도연맹은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내년2월24일부터 27일까지 南美의 에콰도르 구아야킬市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에콰도르 NOC및 현지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이번 제5회대회에는 1백2개국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5회대회는 당초 올해12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키로 됐으나 멕시코협회의 재정사정으로 장소와 시기가 변경됐다。

全北道 우승 市道대항 볼링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쟁탈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의 틀째경기가 20일 漢江볼링장에서 속행, 全羅北道의 尹永基·崔洛煥조가 총점 2천3백35점, 애버리지 1백95로 남자2인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2일전적
▲남자2인조=①尹永基·崔洛煥(전북) 2335점(애버리지 195) ②柳清熙·金正三(인천) 2313(193) ③趙光明·金博(경남) 2302(192)

金煥珍 2次방어전 12월 日도까시끼와

【東京19日=聯合】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金煥珍은 오는12월16일 日本북부 센다이(仙臺)에서 동급2위인 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21·渡嘉敷勝男)와 타이틀2차방어전을 벌인다고 도까시끼의 매니저 가네히라씨가 19일 밝혔다。

세계타이틀에 처음 도전하게되는 도까시끼는 15전13승1패1무의 전적을 갖고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北傀、朝總聯에 게릴라南派·파괴工作도
서울五輪 妨害指令
統一日報 보도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北傀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게릴라의 남파와 산업시설의파괴로 사회혼란을 획책하려하고 있다고 20일자 통일일보가조총련의 소식통을인용, 보도했다。

이신문은 北傀金正日이 조총련의 李季白부의장에게 ①조총련은 일본을거점으로 한국의 올림픽개최가 부당하며 사회적불안요인이 있다고 선전하고 ②일본을 거점으로무장게릴라를 파견, 한국의 산업시설을 파괴하는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84년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계기로 열리는 IOC총회에서 한국의 올림픽개최가 취소되도록 적극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李季白은 9·9節에 참석키 위해 平壤에 갔다가 지난10월8일 東京으로 돌아온후 조총련간부회의와 각계의 조직책임자를 소집, 북괴의 지령을 전달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海上오염防止 계몽

【麗水=聯】해양경찰대 麗水지구대는 20일 상오10시부터 하오3시까지 麗水港을입·출항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오염방지에 대한 계몽및 현장지도를 펴기위해 해상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시내 각기관의 임직원과 시민등 5백여명이 참가, 30여척의 선박에 「해상오염을 방지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수협공판장앞 부두를 떠나신항·구항등을 왕복 항해했다。

敎區 관할法廷 是非
佛國寺住持 効力정지가처분 申請

【慶州=聯】佛國寺 주지 金月樓스님은 20일 曹溪宗 鄭草宇총무원장과 崔碧岩 寶鏡寺주지(경북迎日郡松羅面)를 상대로 大韓佛敎 曹溪宗제11교구 관할지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大邱지법慶州지원에 제출했다。

月樓스님은 신청서를 통해 曹溪宗이 지난 9월19일자로 제11교구 본사를 佛國寺에서 寶鏡寺로 이전 변경한 행위와 鄭총무원장이 10월15일자로 崔碧岩스님을 제11교구 본사주지로 한 발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등이 자신의 제11교구 본사주지업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曹溪宗은 지난 9월19일 열린 68회 종회에서 제11교구의 본사를 佛國寺에서 寶鏡寺로 변경토록 결정했었다。

公州서 百濟문화제 開幕
4개部門서 45개 行事펴

【公州=聯】찬란했던 百濟문화예술을 기리기위한 제27회 百濟文化祭가 19일 전야제에 이어 20일 公州郡公州읍 전역에서 1만3천여명의 주민、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百濟의 고도인 公州와 扶餘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이 문화제는 新羅문화제와 함께 국내3대문화제중의하나。

公州 百濟문화선양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전은 축제·제전·예술·민속등 4개부문에서 45개 행사가 오는22일까지 다채롭게 열리는데 이번 문화제에서 「머슴호미씻기」「노신제」「천다리밟기」「敬天齋興놀이」등 10민속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교실바닥서 기생충

【馬山=聯】각급학교 교실바닥의 먼지속에서 회충·편충·간디스토마등 각종기생충알이 다량으로 검출된것으로 20일 밝혀졌다。

특히 기생충알은 목재로된 교실에서 콘크리트바닥교실보다 더많이 검출됐으며 도시지역학교가 농촌지역학교보다 더심하게 감염된것으로 나타났다。

표류漁船 救助요청

【麗水=聯】20일새벽4시50분께 南濟州郡 추자도서남쪽 20마일해상에서 조업을 끝내고 귀항중이던 麗水선적 안강망어선 제18 大德호(81톤·선장 朴○福·47)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중이라고 해경에구조를요청해왔다。

신고를받은 해경麗水지구대는 濟州해경에 구조를 의뢰했으나 이날상오현재 부근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구조에 나서지 못하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가을散策
崔進淵

햇볕이
우케 멍석 수북한 벼처럼
누렇게 깔려 있다。
소낙비 끝나는 오후 3시
伏兵처럼 일제히 머리를 쳐들던
바랭이풀도 엄숙히 고개를 숙였다。
너무 깊은 하늘 속
나무들의 思索을 흔들어 깨우고
바람은、다람쥐 잔등에 묵、
아람 하나로 波紋을 일으킨다。
온 들판을 무대로 춤추던 사내가
뗏목의 산
범람하는 山菊花 냄새에 실려서
西天 河口쪽으로 떠내려 가고 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아빠하고 오늘 밤에 새로 나온 이 탐정영화를 보러갈거란다"
"저도 봤어요! 아주 굉장해요!"
"하녀가 그짓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하인 우두머리가 그런걸요!"
"그 영화에 쏙 빠질거예요…그 짜릿한은 마치 불꽃의 다이너마이트죠!"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賦 <213>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⑪

좌중이 긴장했다。

이두남과 이정란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더니 두남이 먼저 말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소」

이어 이정란도 황급하게 말했다。

「역모란 말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될거요」

계남은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라서 웃음을 머금고

『또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진녀의 집으로 하회를 주시이다。 오늘은 여러가지 좋은 말씀 들었읍니다』 하는 인사를 남기고 두남의 집에서 나왔다。

계남이 그들의 심정을 알았다는 것은, 만일 그들이 역모를 알고도 관에 고하지 않았다면 큰 죄를 받게 되는 것이며 역모하지 않는 것을 역모 한다고 고하면 또한 무고(誣告)의 죄를 얻게 되는 것이어서 경원하게 역모란 말을 입밖에 낼수없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남이 숙소로 돌아가니 이태수가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여립의 집 종에게 술 두사발을 사주었더니 여립이 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더라고 했다。

『거기가 어딘데』

『내장산의 뒷골짜기라고 하옵디다』

그 말을 들은 계남은 이태수는 그냥 남아 있어 여립의 집 사정을 살피라고 해두고 문정룡과 배석환을 데리고 내장산 뒷골짜기를 향해 떠났다。

정여립은 내장산 뒷골짜기에서 궁술대회(弓術大會)를 한다고 빙자하고 각처에서 사수(射手)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계남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십야(二十夜)의 달이 중천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잔치는 계속되어 있었다。

『월명성희(月明星稀)、오작남비(烏鵲南飛)』 하고 조조의 시를 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풍역천 명일순천(隨風逆天 明日順天)』이란 출처미상(出處未詳)의 시를 읊는 사람도 있어 자리는 자못 시끌벅적했다。

계남은 먼 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혹시 여립이 자기를 알아볼까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일었지만 5·6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고, 자기의 얼굴이 구레나룻에 덮여 있는 것을 깨닫고 대담하게 잔치자리로 들어섰다。

『나는 경기도 안성의 홍요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나다가 궁술대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늦게사 당도하였소』

계남의 말이 있자

『반갑소이다。 홍현』

하고 일어선 사람이 정여립이었다。 여립은 상석에 자리를 비워 계남일행을 앉히곤 대배(大杯)에 술을 가득 따라 권했다。

『험한 산길을 걸어 월명이 있었다고나 하나 밤에 찾아주셨다니 반가운 일이오。 붕우자원방래(朋友自遠方來)가 아니라 장사자원방래이니 못지않게 기쁘구려』

여립의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남이 대배를 비워 여립에게 돌렸다。 그놈의 면상을 잡았던 기왕의 일이 생각나기도 해서 웃으웠지만 가까스로 참고 여립을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面面)을 둘러보았다。 백산군의 식객들을 방불케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배타고 감따는水沒民
◇충남大德郡東面沙上里앞 大清댐 수몰지구의 감나무과수원에 풍성하게 익어가는감을 주민들이 급조한 농선을타고 따고있다。【大田=聯】

DOMINION SMALLWARES

oct.19-Oct.31 ◆◆ 금주의 스페샬 ◆◆

Neilson w-o-p box chocolate Assort. 6 kinds	12/159¢	11.40 (95¢ each)
Dare peg top bag candy	12/139¢	9.45
Moirs bag candy	24/ 25¢	3.45
Rogers soft granola bar	40/ 35¢	
Icy chocolate	150/ 5¢	4.55
Pal gum	240/ 2¢	3.05
Leaf face off ball gum	48/ 10¢	3.05
Leaf ball of fire gum	48/ 5¢	1.45
Lucky elephant pop corn	48/ 5¢	8.99
David & Sons sunflower seed in shell —	24/ 10¢	1.58
Gobstoper	24/ 25¢	3.85
Bazooka gum	36/ 10¢	2.25
Popping corn	24/1 lb bag	9.41
Laura secord bars	36/40¢	9.29
Turtle& big turk bars	36/ 40¢	9.29
Neilson chunks reg&peanuts	120/ 15¢	11.29
Cigaro licorice red&black	48/ 10¢	3.00

DOMINION SMALLWARES
이 기간동안 헬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789-7214(MR. 김)

Lawrence / Keele / Caledonia / Dufferin

장공 김재준 박사의 "범용기"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김재준 박사님이 자신의 삶과 사상의 발자취를 살피시면서 쓰신 자서전 "범용기" 제1권이 출판되었읍니다. 그리고 김박사님 내외분은 이 가을에 제80회 생신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읍니다.

이 두가지 일을 자축하기위해 우리자녀들이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디 많이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1년11월1일(일요일)하오6시
곳 : 토론토한인 연합교회 친교실(300 BLOOR ST. W.)

장남부부 : 김은용, 김행강 차남부부 : 김경용, 김효순
사위부부 : 이상철, 이신자 사위부부 : 장인철, 장혜원

※오시는 분에게는 책을 실비로 드리고 저녁식사도 대접할 것입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華僑끼고 寶石 억臺密輸

中國人등5명拘束 가방에2重장치…稅關속여

釜山지검적발

【釜山=黔】釜山지검 특수부 金炳南검사는 20일 咸本善씨(34·仁川市南區道禾洞641)劉忠義씨(仁川市南區朱安洞352)등 2명과 蔡泳외(51·仁川市南區關石洞224)朴九順(28·서울永登浦區新吉洞425)嚴基勳씨(서울城北區安岩洞2가119)및 한국인 판매책 3명등 모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咸씨의 처인 중국인 趙淑女씨(29)를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인 蔡모씨(45)와 金한영씨(48·仁川市中區新興1洞8)를 수배하는 한편 이들로 밀수한 다이어 3백개(1·3~5부) 루비 3백27개 비취12개등 보석류 6백30개와 녹용7냥 우황청심환 카메라등 모두44개 품목의 밀수품 5천여만원어치를 증거물로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咸씨는 仁川市南區道禾洞에 巨人商事란는 간판을 내걸고 수입품 판매상회를 경영하면서지난6일 타이페이를 떠나 KAL기편으로 金浦로 입국하면서 1·3부짜리 다이어 2백개를 이중장치한 여행용가방속에 숨겨들여와 처인 趙여인과 蔡泳외씨를통해 인천판매책인 金씨와 서울판매책인 嚴·朴씨등을 통해 전국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咸씨는 또 지난달6일 수배중인 중국인 蔡씨가 숨겨들여온 다이어2백개,루비1백62개, 녹용7냥등을 넘겨받아 국내판매책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수배중인 仁川판매책 金씨는 지난15일 중국인 劉씨가 숨겨 입국한 산호1백여개를 매입,仁川등지의 중간상인에게 팔아왔으며 서울판매책인 嚴·朴씨등을 통해 서울 鍾路등지의 보석중개인들에게도 팔아왔다。

새벽 5人組복면強盜

注油所침입 경비원묶고 現金등 털어

20일새벽 2시15분께 서울江東區石村洞9의7 태광석유販賣주유소(주인 李桂哲·38)에 식탁용칼을 든 5인조복면 강도가 들어 사무실에있던 경비원 文錫濟씨(63)를 위협,노끈과 전화선으로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뒤 사무실내의 중형금고와 카운터서랍등을 부수고 현금28만4천원,10만원권자기앞수표3장등 모두 58만4천원을 털어 달아났다。

文씨에 의하면 19일밤10시께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정리한뒤 소파에앉아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덜거덕거려 일

서울大 81학년도入學生 졸업定員초과學生

學科別로 脫落시켜

서울대는 20일 대계열별로 모집한 81학년도 입학생의 학과별 졸업정원을 확정하고 2학년 진학때의 학과배정은 각과졸업정원의 1백30%안에서 하되 졸업때까지는 전체정원에 관계없이 학과별로 졸업정원초과인원을 탈락시키기로했다。

서울대가 이날 확정한 학과별「기준졸업정원표」에 따르면 지난해의 졸업정원1백85명에서 5백20명으로 2·8배가 증원된 인문대의경우 국문학과·중문학과·불문학과등은 평균3배가 증원되는 반면 인기학과인 영문학과는 4배가 늘었으나 철학과 고고미술사학과등은 2배가 늘었을뿐이다。

또 지난해졸업정원보다3배가증원된 사회대의경우 정치·외교·경제학과등이졸업정원 증원폭에따라증원됐으며 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등은 이보다많은 3배가늘어난대신 사회·심리·지리학과등은 2배만 늘었다。

日本바둑계 元老 사까다9단 來韓

일본바둑계의 원로로 일본기원이사장을 겸하고있는 사까다·에이오9단(坂田榮男·62)이 20일낮12시20분 JAL편으로 내한했다。

한국기원 초청으로 내한한 사까다9단은 이번이 3번째 방한인데 세계적인 바둑붐에 따른 세계대회의 한국유치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文化의날 기념식 南총리등 참석

南悳祐국무총리를비롯한3부요인과문화예술계인사등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文化의 날 기념식이열렸다。

이날 南총리는 기념식사에서『헌법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화조항을신설하고 4대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설정한것은 자주적인 민족문화를 계발하고 문화발전의 여건을계선하는데 목표를둔것』이라고 말하고 지방문화를 육성, 개발해 모든국민이 이 문화의 혜택을 고루누릴수있도록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海士36기 巡航훈련分隊 마닐라첫寄航 환영받아

【마닐라=申鉉鈺기자】지난15일 鎭海를 출발한 海士제36기 순항훈련분대가 19일상오(한국시간) 첫기항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입항, 李楠基대사를 비롯한 많은교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출항 4일만에 남지나해를 가로질러 마닐라에 도착한 순항훈련분대는 군악연주,의장대시범,사진전시,함정공개등을통해 교민들에게 조국의 긍지를 심어주고 교민회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교민들과 향수를 함께 나누었다。

◇해사 순항훈련분대가 마닐라에서 교민들에게 의장대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區廳위생課長 구속

就職미끼 뇌물받아

【大邱=黔】청소부취업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大邱시경은 20일 청소부및 청소차량운전사 취직을미끼로 현금70만원을 받은 大邱市東구청 위생과장 金大植씨(56)를 뇌물수수혐의로,동구청청소감독 金道烈씨(49)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극동방송 開局25년

24일 聖歌大合唱祭

극동방송개국25주년기념제6회 聖歌大合唱祭가 24일(하오 3시·7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린다。

「중요無形文化財공연」「전국민속경연」등

民俗의 가을 더욱豊饒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전통민속예술공연이 만발하고 있다。인간문화재와 그 이수자및 전수생들이 합동으로 벌이는「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23일~28일)을 비롯,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첫선을 보이는「민속경연대회」(22~24일)등 전국적인 규모의 민속예술 행사가 거의 동시에 열려「민속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있다。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중요무형문화재(무대종목)발표공연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동안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공연시간 하오7시)

무형문화재

20여종목 師弟합동 공연

傳承효과 가늠하는 現場

◇무형문화재 韓英淑씨의 僧舞。이수자·전수생들과의 합동공연을 볼수있게 된다。

20여가지의 무대종목에 걸쳐 인간문화재 51명과 그 이수자 96명, 전수생 83명, 악사등 모두 3백60여명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종래의 인간문화재기능중심 공연에서 벗어나 인간문화재·이수자·전수생들이 함께무대위에 서게 함으로써 그 전승효과를 가름하는 현장이 되도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출연하는 인간문화재 들을 보면 종묘제례악의 成慶麟 金千興, 승무의 韓英淑, 판소리 산타령의 李昌培, 경기민요의 安福植, 처용무의 李海龍, 판소리수궁가의 朴初月, 거문고산조의 韓甲得, 가야금병창의 朴貴姬, 판소리 적벽가의 朴東鎭, 歌詞의 鄭坰兌, 대금정악의 金星振, 西道소리 吳福女, 판소리춘향가의 金素姬씨등 국내 명인·명창들을 모두 망라하고있다。

문화재 보호협회 林商圭씨는『대학가의 민속극 붐때문인지 이수생이나 전수생들을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있다。이번 합동공연은 젊은이들에게 전수의 현장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민속예술에대한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데도 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僧舞와 鶴舞의 인간문화재 韓英淑씨(62)는『나이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어 승무와 학무의 진수는 제가 추지만 그밖의 춤사위는 제자들에게 추게 할예정』이라고밝힌다。

여창 가곡의 인간문화재 金月荷씨는『정부가 문화의 달을 맞아 인간문화재와 이수자들의 합동공연을 마련하는 것은 고마우나 이런 기회를 좀더 자주 갖게해서 아직까지 대중에게 소원한 전통예술을 보다더 일반화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다。승무의 이수자 鄭在晩씨(33·세종대교수)도『정부는 인간문화재의 젊은 전수자 양성을위해 타분야처럼 병역의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3일=종묘제례악、판소리(적벽가) 가사、가야금산조、승무 ▲24일=판소리 산타령、판소리 춘향가、경기민요、거문고산조、판소리 적벽가、가야금산조、여창가곡 ▲25일=처용무、판소리 수궁가、서도소리、진주검무、거문고 산조、판소리 흥보가、가야금 병창、사나위 ▲26일=鶴舞、판소리적벽가、가곡、대금 산조、판소리 수궁가、경기민요 ▲27일=경기민요、판소리 심청가、가사、범패、관소리(춘향가)、대금정악 ▲28일=승전무、가곡、西道소리 등이다。

民俗경연

용왕굿등 8개종목 첫선

19개팀 日·印度서도出演

한편 仁川直轄市주최로 기념해 22일부터 24일까지 仁川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제22회『전국民俗예술경연대회』에는 용왕굿등 8개 종목이 새로 발굴되어 첫선을 보인다。

농악 민속극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등 5개부문에 이북 5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대표 19개팀 1천48명이 출연하는 올해 대회에는 日本의 일본민족예능국제교류협회회원 21명과 印度의 민속예술단체「칼라세트다트루프」의 27명이 처음으로 찬조출연, 고유민속무용과 민요를 한국 관중에게 보여준다。

출연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농악2팀 (堤川頭鶴농악·江陵대보름농악) ▲민속극3팀(鳳山탈춤·松坡산대놀이·北靑사자놀음) ▲민속놀이9팀(立石줄다리기·함두게놀이·용대기놀이·현천소동패놀이·소놀이굿·영변서남대제·용왕굿·강화시선뱃놀이·밀양백중놀이)▲민요3팀(두만강뗏목놀이·영변가·집줄놓는노래)▲민속무용2팀(東萊학춤·醴泉청단놀이)이다。

민속학자 沈雨晟씨는『우리나라 전통예술은 서양음악이나 무용에비해 조금도 뒤짐이없는데도 일반들에게 외면당해왔다。문화의 달을 맞아 국민학교부터 정규과목으로 민속예술공연강좌를삽입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싶다』고말했다。【崔成子기자】

住公、새住宅型 개발

混合型아파트등 5가지類型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2개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隔層복도식 고층아파트,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地表面아래에 건설하는 覆土주택등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주택공사에 의해 선보일 예정이다。

20일 住公에 따르면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은 에너지절약·관리비절감등을 위한 기술개발노력끝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住公이 개발, 곧 모습을 보이게될 새로운 住居型은 다음과 같다。

▲併合성장형아파트=소득증대에 따라 두가구의 아파트를 병합하여 한가구용으로 사용할수있도록 한것으로 이미 城南지역에 건설중이다。

▲混合型아파트=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한棟에 평수가 다른 아파트를 함께 배치한 것으로 서울 開浦지구에 시험건설중이다。

▲격층복도식 고층아파트=엘리베이터승강장을 매 2층마다 설치, 공용면적을 줄임으로써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자는 것으로 내년에 果川에 시험건설할 예정이다。

▲복토주택=에너지를 절약하고 구릉지에 건설이 가능하면서도 환경보전효과를 낼수있도록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地表面아래에 짓는 주택으로 유지관리비는 싸지만 초기건설비가 20~30%가 비싸기때문에 현재 검토단계에 머물고있다。

▲지체부자유자아파트=전체인구중 1.57%가 지체부자유자란점을 감안, 노약자와 유아에게 편리하도록 설계도를 개발, 내년에 果川에 시험건설할 계획이다。

合作投資등 논의

韓美經濟協會 공동회의

【뉴욕20日=金泰雄특파원】韓美경제협회는 19일 뉴욕에서 제6차 공동회의를 갖고 제5차 5개년계획과 미국의 對韓투자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韓美경제협조노력을 다짐했다。

劉彰順 한국측회장은 기조연설을통해 5개년계획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미국회사와의 최신기술교환및 제3국에서의 韓美합작투자를 강력히 요구했다。

劉회장은 또한 미국의 對韓수입정책을 조속한 시일에 완화해야 한다고 한국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미국측을 대표한 존·F·맥길리커디 하노버社회장은오찬연설에서 미국경제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향후 2년동안 미국경제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할것이다』

"河형사는 單獨犯"

압수품중 盜難品 더없어

서울市警서 밝혀

河英雄형사의 예금증서절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0일 尹景花씨의 유품가운데 더이상 없어진 금품이 없으며 공범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경은 문제가된 예금증서 3장외에 훔쳐진것이더 있을것으로 보고 尹씨가 거래하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건당시 경찰이 작성한 압수품목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문제의 예금증서 3장뿐이었으며 또 尹씨의 유품을 넣어둔 캐비니트열쇠를 河형사가 보관했지만 河형사의 범행당일까지 캐비니트자체가 아무도 손을 댈수 없도록 봉인돼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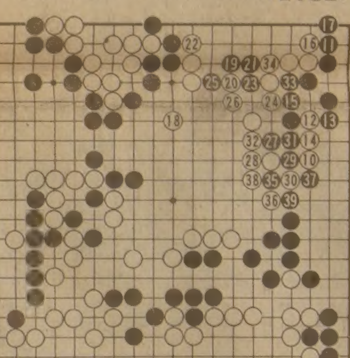
시경은 이와함께 공범유무를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밤 河형사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는 동료형사등 주위인물에대한 수사를 벌였으나『공범은 없는것』으로 결론지었다는것이다。

경찰은 이밖에『徐光錫씨를 범인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河형사의 진술에 따라 徐씨를 찾고있으나 徐씨는 경찰에 아직 출두하지 않고 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6譜 110~13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 哲 民〈1敗〉
黑(4段) 姜 勳〈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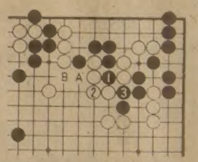


白10으로 우변에 뛰어들자 黑은 또 한번 곤욕을 치러야했다。대세가 불리한만큼 어떻게 白을 추격하느냐가 당면한 과제인데 오히려 黑11이하 17로 구구도생해서는 말이 아닌것이다。다만 姜4단은 黑19로 예리하게 침입하여 역전의 기틀을 잡는가싶었다。원래하변과 좌중앙의 전투는 모두가 黑의침입에서 발생했거니와 이 黑19이하는 전과달리 대세를 뒤집을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黑27은 그렇다하고 다음29가 우선 검토실의 의아심을 산 악수였다。이수로는 참고도처럼 黑1에 젖혀 白2면 3쪽을 끊어서 우상귀의 白을 잡을 찬스였던 것이다。白2를 3에이으면 黑「A」에 몰고나와 2에 잡는수와「B」로 꼬부리는 수를 맞보아 그만이었다。

黑■중대한 失機

이기회를 놓친데에는 아마 姜4단의 지나친 수읽기、아니면 무슨 착각이 있었겠으나어쨌건 黑을 위하여안타까운 장면이 아닐수 없다는 중론이다。



白32로써 공배가 이어져서는 이미 때가 늦다。黑39까지로 白3점을 잡기는했지만 앞서 투자한 黑19이하의 손실을 도저히 메울수 없는 것이다。

아마추어 눈에는 우변黑이 소위「19로장롱」이어서 굉장히 커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않고 이로인하여 白의 승리가 간단하게 결정되었으니 黑만 대낭패였다。【一凡】

綿糸 1천여톤收買

商工部、備蓄키로

상공부는 輸出및 內需부진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綿紡업계의 活路를 터주기위해 22억1천5백만원의 자금으로 1천2백66t의 綿糸를 收買 備蓄키로했다。

20일 상공부에따르면 大農·忠南紡織·大韓紡織·京城紡織등 21개업체에 이르는 綿紡업계는 연간 40여만t의 綿糸를 생산하고있으나 輸出및 內需부진으로 재고누적과 함께 심한 경영난을 겪고있어 이미 4천5백39t(61억5천2백만원)의 綿糸를 비축해두고있는 조달청으로 하여금 1천2백66t을 더수매비축토록 했다。

배우 禹演征투병기 劇化한

「그대앞에…」 日本에 輸出

영화배우 禹演征양의 골수암투병기를 담은 영화「그대앞에 다시 서리라」(禾豐흥업제작·李元世감독)가 10만달러에 日本에 수출된다。

수입선은 日本의 영화제작사 선·필름사。

선·필름측은 올해가 신체장애자의 해여서 육체적·정신적장애를 극복한 사실감넘치는 투병기가필요했다。「그대앞에…」가 많은사람에 감동을 줄 역작이라고 판단,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는것。특히 수기의 주인공이 대역을 거부하고 한쪽 다리로 연기를 이끌어간 열연은 일본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것으로 선·필름측은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영화가 제작사의 창구를 통해 日本에 직수출

모든흙이 살아生 〈232〉

趙善作
金光培畵

돌개바람 불다 ㉝

『글쎄, 알쏭달쏭 해』

『그럼 그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거란 말은 뭐죠?』

『그냥 느낌이…』

유장훈 감독은 말 끝을 흐렸다。그랬다가는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일도 안 되고, 우리도 오늘 서울로 돌아갈까 해』

『나 때문인가요?』기습을 한듯이 내가 묻자, 그는 좀 어눌해져서『아니, 여행이라는 게 본래 사람을 맥빠지게 하니까』하고 어물거렸다。

『함께 가자고 한 분이 누군데요?』

『아니, 미스 안을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내가 좀 나가 있을 테니까 일어나시지。이 친구 울시간도 되었고』

유갈록은 도망치듯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한참동안 잠자코 있다가 나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옷을 입기 전에 나는 무릎의 상처에서 떨어져 나간 거즈를 찾아 도로 그 자리에 붙였다。상처는 많이 아물어 있었다。옷을 모두 입고 나는 차분히 침구를 개어 한쪽 구석에 쌓아놓았다。친구는 두벌이었는데 유장훈 감독용이아닌 또하나는 처음부터 펼쳐져 있지도 않았다。책상 쪽에만 종이에 끼적거린 영상적(映像的) 생각의 잔해(殘骸)들이 어지럽게 널려져있을뿐 그밖에는 방이 말짱하고 깨끗했다。

나는 정돈된방의 한쪽구석에 무릎을세우고 앉았다。그리고는 왠지 이 사내가 유장훈감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너무도 빨리 충격에서 벗어날것을알고 놀랐다。그것은 안정과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는데, 도무지 나는 나자신이 기이할 지경이었다。

『다 되었소?』하고 유장훈감독이 방문을열고 들어왔다。그는 방한쪽구석에 쪼그리고앉은 나를 힐끗 바라본 다음,『이친구 어디로 갔는지 안보이는데? 총엄원이 그러는데 어젯밤 일루 오지도 않았다는 거야』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내게 문제도 되지 않았다。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일이 비단 유장훈 감독뿐만아니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우치고 있었으며, 아득히 먼곳으로 사라져 버린 듯 싶었던 J씨가 베레모를 삐뚜름하게 쓰고 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유장훈감독은 괜스레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책상 한 귀퉁이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그런 다음 파지(破紙) 한장을 들어 눈 앞에 가져갔다。그러나 그는 파지에적힌 글자들을 읽지 않았다。

『그 친구하고 사이에 미스 안에게 모종의〈섬싱〉이 있다는 것쯤이야 눈치채고 있었지만…정말 어케 된 거요?』

『어케 되긴, 뭐가요?』

『그렇게 착각할수가 있었느냐는 거요? 난 취해서 그랬다 쳐도,미스 안은…』

『착각 안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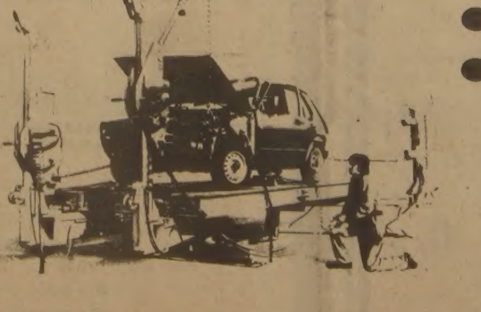
『그래애?』

유갈록은 힐끗 나를 돌아보았다。그러나 나는 그를바라보지 않았다。바라보지 않고도 나는 그의 의아해 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나는 그가 간밤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와지고자 하는 저의도읽을수 있었으며, 그런 그가용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내친 김에 나는 유갈록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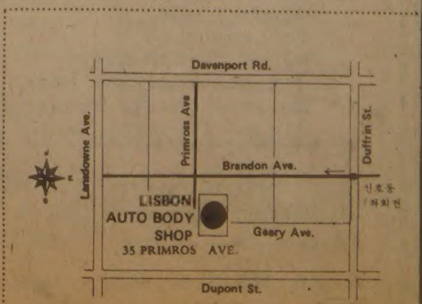
『갈록님도 착각 안 했구요。미스 안이라고 아마다섯번쯤은 불렀을 걸요?』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BODY
LISBON AUTO BODY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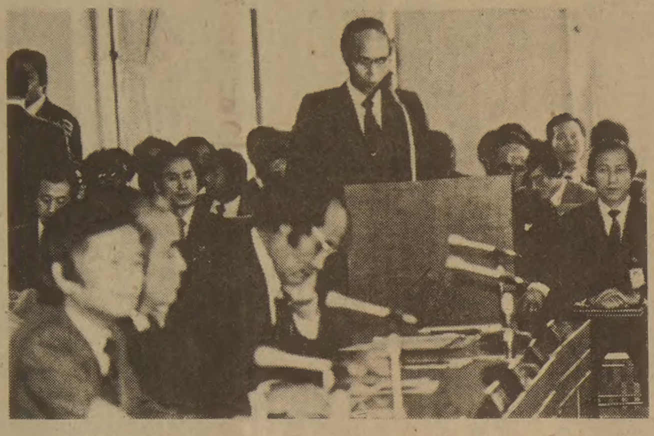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河刑事사건 國會에 飛火

內務委 高位관계자 引責 추궁

內務·治安本部長불러 夜間회의
竊取경위·對策등 청취

河英雄형사의 預金증서절취사건은 경찰공무원의 公信力과 관련하여 政治문제로 飛火, 국회內務委는 19일하오 徐廷和내무장관과 柳興洙치안본부장을 불러 이번사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사건경위와 함께 책임을 추궁하고 앞으로의 對策등을 따졌다. 이에앞서 民正·民韓黨등은 이날상오 긴급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성명을 통해 고위관계자의 引責공세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국회는 이날 運營등 13개常任委를 일제히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청취를 계속하는 한편 外務、經科、商工委등은 일련의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內務委는 19일하오 경찰瀆職사건을 추궁하기앞서 朴英秀서울시장으로부터 市政보고를 들었다.

外務委 盧信永외무부장관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死後의 이집트와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새로운 對이집트 정책을 검토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간의 회의를통해 이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88년 올림픽을 민족大和合의 계기로 삼고 南北韓 최고당국자간의 대화를이루는 기틀로 만들고 싶으나 北韓측은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고 답변하고『올림픽유치를 계기로유엔加入노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며 지난번 유엔방문에서도 한국이 아직껏 유엔에 가입치못한 不合理性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盧장관은 이날 柳漢烈·許景九(이상民韓)李榮一(民正)朴定洙의원(무소속)등의 질문에 이같이답변했다.

內務委 金正禮、鄭男의원(이상 民正)등은 低質탄제조문제에 관해 앞으로의 연탄파동가능성, 高地帶영세민에 대한 공급, 처벌공무원의 數와 명단의 발표등을 추구하면서『서울市가 연탄제조감독의무를 불충실하게 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朴시장은『저질탄제조를 봉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民營炭의 原炭을 原産地에서 出荷할때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기관에서 검사를 철저히하여 公認熱量표시제가 실시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公認熱量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을경우 貨車에실린 原炭이 入荷될때마다 서울市직원이 驛으로나가 일일이 열량을 측정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朴시장은『앞으로는 서울市가 月2회씩검사를 강화하여 4천3백70칼로리이상의 연탄을 제조토록 하겠다』면서『국내原炭이 良質로만 계속공급될수있는지 여부는 動資部에서 면밀히 검토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炭質저하요인으로 수입炭、石公炭、民營炭등 3등급의 原炭중 열량이 낮은 原炭인 民營炭이 혼합과정에서 많이 配合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商工委 • 朴鳳煥動資部장관으로부터 低質연탄사건에대한보고를 들은뒤 李元範(民韓)高源駿(民正)李圭正의원(議同)등이 정책질의를벌였다.

의원들은 연탄업자들의부당이익을 국민에 還收시킬용의▲소비자가 참여하는 炭質검사기관설립▲연탄不正에대한罰則강화를위해法을개정할 용의가 없는가고 따졌다.

"警察 瀆職사건 再發없도록
眞相·背景 철저히 糾明"

各黨서 聲明

주요정당들은 사건담당형사의 預金證書절취사건을 重大視하고 19일상오 긴급간부회의를열어 이사건을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高位관계자의 引責공세를 펴기로했다.

民正黨은 이날 긴급 黨職者회의가 끝난뒤 李斗玩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중대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관이 그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훔쳤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놀랍고도 매우 유감스런일이 아닐수없다』고 말하고『民正黨은 이사건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民韓黨은 이날상오 총재단과 黨3역 연석회의에서 경찰관瀆職사건및 여대생被殺사건에 관련된 人權유린문제를 국회내무위에서 그眞相과 배경을 철저히 추궁하여 고위관계자의 引責공세를 펴기로했다.

民韓黨은 金珍培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최근 경찰관이 강력사건수사에 있어서 人權을 유린하거나 상상할수없는 河형사사건과 같은것을 남긴것은 수사경찰의 헛점을 드러낸것으로 당국은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金변인은『徐廷和내무장관에대해「河英雄형사의 責任…」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도 이날 林德圭부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해야할 경찰의 위신추락과 사기저하 그리고 治安당국에 대한 온국민의 不信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사회적 문제』라면서『국회에서 이사건에 따른 當局의 책임규명과 경찰의 官紀확립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말했다.

讀政부회의 金順圭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경찰공무원이 그 본래의 막중한 사명을 망각한 중대한 과오는 용납할수 없으나 생활보장이 없었던 공무원의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사건을 계기로 누적된 구조적인 경찰부조리를 拔本塞源、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새警察官像 정립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農水產委등 열어 秋穀收買價 논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는 19일하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20일상오10시 農水產委와 經科委연석회의를 열어 秋穀收買價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淨化업무 85年定着 國會에 보고서

사회정화위원회는 85년이후의 淨化업무定着을 목표로 우선 82년도에는 사회적病理현상을 진단하는 체제를구축하고 공직사회의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사회정화위는 19일 국회운영위에서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직폭력과 불량배·課外·서민생활저해事犯의 척결등 國保委공약사업의 事後관리를 계속할방침이라고 밝혔다.

韓美 政策협의회 11월 서울서개최

韓美양국간의 제2차政策協議會가 오는 11월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9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 발표됐다.

지난2월 韓美頂上회담에서 타결된 양국정책협의회의 조속한 再開합의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孔魯明외무부정무차관보가、美側에서는 폴·월퍼위츠국무성정책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반적인 국제정세와 기타 지역정세에 관해 韓美외교실무진간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韓美두나라는 1차정책협의회를10·26직전인 지난79년5월 慶州普門단지에서 개최했었다.

社會漫評

아직도 도처에…

"연탄質개선·越冬物量확보"

朴動資보고 質검사強化·無級炭거래 못하게

앞으로 하루에 두번같이로 물량부족사태가 빚어지지 않
충분하도록 연탄질 개선책과 도록 越冬수급계획이 마련됐다.

朴鳳煥동자부장관은 국회상공위에서 低質炭문제의 배경과 향후대책과 관련、이같이 밝히면서『검찰의 수사내용과 동자부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검찰은 탄광업계가 4백억원의부당이득을 보았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16억2백만원의부당이득만을 본것으로 보고있다』고 보고했다.

朴장관은 탄질개선 기본대책으로 채탄단계에서 良質炭생산을 촉진하고 유통단계에서 공정거래를 보장하며 연탄제조단계에서 검사기능을 강화、종전의 연탄열량 4천3백40칼로리에서 월동기간이 시작된 이달부터 4천4백80칼로리로 높였으며 82년상반기중엔 기준열량인 4천6백칼로리를 유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적정탄가의 계속유지로 증산시책과 탄질향상의 여건을 마련하고 주요도시별 市直營시험연탄공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탄광의기계화율을 현재의 8%에서86년엔 35%로 높이고 연탄업계의 수입탄 혼합기술을 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한 無級炭(3천칼로리이하)의 생산거래를 전면중지시키고 탄질검사를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월동수급계획은 금년10월부터 내년3월까지 수요1천5백34만톤을 공급하고 2백43만톤을 저탄시키기위해 1천7백77만톤을 생산 공급하는것으로 짜여있다.

朴장관은『검찰은 기준열량 4천6백칼로리에미달되는 4천3백칼로리의 연탄을 생산、10원의 부당이익을 개당20원의 부당이득을보아 모두 4백억원의부당이득을 보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열량에 프러스、마이너스5%의 오차를 허용하고있어 최하기준치 4천3백70칼로리에 비해 불과 70칼로리의 오차밖에 나지않아 개당열량미달로인한 부당이득금은1원25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검찰은 산출근거로써 9월30일가격을 적용했으나 각 時點별로 고시가격을 적용해야 하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도 검찰과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朴장관은『따라서 동자부는 재고차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열량미달 부분도 금년 1월부터 4월18일까지 9억6천5백만원、4월19일부터 8월13일까지 4억9천8백만원、8월14일부터 9월14일까지 1억9천9백만원등 모두 16억6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탄업체와 연탄제조업체가 兩分해 가졌다』고보고했다.

勞動文化祭 受賞者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9일하오 靑瓦臺에서 丁花福양(22·한국화장품 光州지점)등제2회 勞動文化祭受賞者55명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權重東노동부장관과 鄭漢株한국勞總위원장이 배석했다. 〈사진〉

카니아波1書記 失脚

共產黨 전격交替 後任에 야루젤스키首相

【바르샤바18日 UPI聯合】 폴란드공산당은 18일 지난1년동안 폴란드내정개혁과 국민적 화합을 주도해온 스타니스와프·카니아黨제1서기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현수상(58)을 선출하는 전격적인 지도부교체를 단행했다.

공산당은 이와함께 폴란드자유화의 구심점이 되어온 자유노조에 대해 ▲즉각적인 파업금지 ▲반공분자들의 정치중단 ▲정부시책에의 적극협조등을 추구하는 폴란드사태발발이후 가장 강경한 경고결의안을 채택、對노조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함으로써 마바지에 이른 폴란드사태는 새로운 긴장상태를 맞고있다.

2백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회의 3일째인 이날 카니아제1서기의 對노조 유화정책에 대한 黨內의 비판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카니아제1서기가 제출한 사표를찬성1백4、반대79의 근소한 표차로 승인했으며 뒤이은 후임자 선출에서 단독출마한야루젤스키수상이 1백84표중 1백80표를얻어새黨제1서기로 선출됐다고 관영PAP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작년9월 폴란드사태발발에 뒤이은 기에레크前제1서기의 사임과 함께 후계자로 선출됐던 카니아제1서기는 재임13개월만에 權座에서 물러났으며 파업과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진행돼온 내정개혁과 자유화정책은 새국면을 맞게되었다.

PAP통신은 중앙위전체회의가 국내의 현정치경제난국의 책임을 물어 카니아제1서기와함께 15명의 정치국원가운데 일부를 교체했다고 전했으나 교체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黨中央委는 이와함께 전례없이 강경한 對자유노조경고결의문을 채택、자유노조가 일방적으로 사회협약을 깨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려하고있다고비난하고 당국은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익을수호하기위한 최대한의依法조치를 단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폴란드사태발발이후 정부·노조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의회에대해 파업금지법을 승인할것을 요구했다.

必然的인 결과 波自由勞組 논평

【랑 (프랑스) 18日 AFP聯合】 폴란드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는 18일 카니아 폴란드공산당제1서기의 사임에 대해 논평을 피했으나 바웬사의측근대변인은 카니아黨제1서기의 몰락이 사태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논평했다.

安保經協 意見교환

盧外務·日大使

盧信永 외무부장관은 19일상오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1시간동안 요담했다.

이날 요담에서는 소노다(園田直) 일본외상이 지난주 議會에서 한국이 요청한 60억달러의 安保經協요청에 대해 難色을 표명한내용의 발언과 관련、日정부의 정확한 眞意와 對韓입장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담에서는또한 이번 유엔總會에임했던韓日양국의 기본입장과 東北亞를 포함한 최근의 국제정세 전반에관해 의견이 교환된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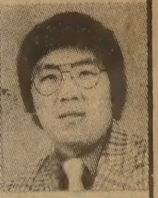
地平線

거리에서 여자를 만났을때 폴란드 남자들은 으레 허리를 굽혀 큰 절을 하고 보드라운 손목을 잡고 입을 맞추는게 「미풍양속」이었다 한다。그러나 이 미풍양속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굶귀상태에 있는게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기사도정신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임신한 부인이나 꼬마의 손목을 잡은 엄마도 식료품가게앞에 늘어선 줄에서 밀려 나기 일쑤라는 얘기다。▼새벽까지 붐비던 카페나 영화관의 불은 꺼지고、보트카는 배급제가 되고 맥주는 사라지고 있다。그러니까 인심이 사나와지는것은 당연하다。폴란드정부에 의하면 올해의 공업생산은 13%나 떨어질 것이라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경제적 혼란을 좌우하는 것은 이나라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요、주종 수출품인 석탄 생산이다。▼이대로 간다면 폴란드의 석탄생산은 작년보다 15%나 떨어질 전망이다。덩달아 시멘트는 30%、철강은 17·6%가 떨어질것으로 보인다。자유노조의 압력으로 소득은 31%나 늘었지만 소비재공급은 겨우 7·7%가 늘었을뿐이다。그래서 정부당국자도『경제파탄과 모든 소비재의 배급제』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있다。▼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있다。이대로 간다면 석탄생산은 올해의 1억6천4백만톤에서 1억5천5백만톤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만일 1억7천5백만톤으로 올릴수 있다면 공업생산도 5% 성장할수 있을 것이다。폴란드정부는 그 중간을 잡아 1억6천8백만톤으로 목표를 세우고 적어도 석탄생산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그렇다 치더라도 폴란드는 서방측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61억달러나 되는 빚의 원리금 상환을 늦추고、막대한 수입물자의 값을 치르는데 42억달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한마디로 말해서 70년대에 폴란드가 이지경이된 책임은 공산당을 지배했던 세력에있다는게 자유노조의 주장이다。경제위기가 바로 정치위기가 되는 이유다。▼9백50만회원을 거느린 자유노조는 지난7일、18일동안에 걸친 전국대회를 끝냈었다。9백명의 대의원들은 기업경영의 자율화와 교육·사법부의 독립、신문·방송등 대중매체의 개방、그리고 정치범의 석방과 파탄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붙이라고 요구했었다。공산당이 14개월만에 3번째의 지도부개편을 했지만、자유노조나 공산당이나 역시 舊面주역들이 움직이고있다。무대는 아직도 바뀌지않은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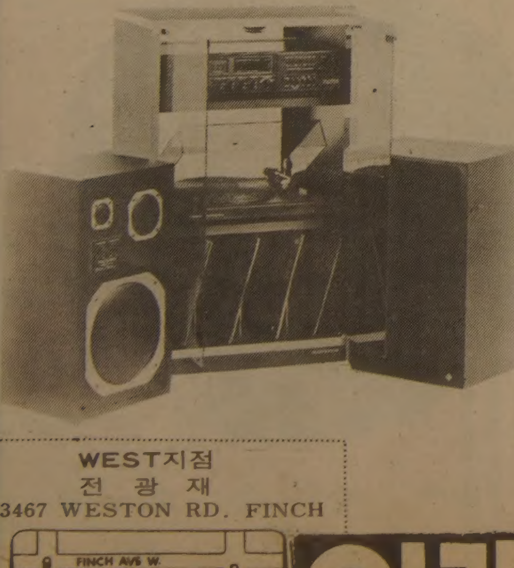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0
은 :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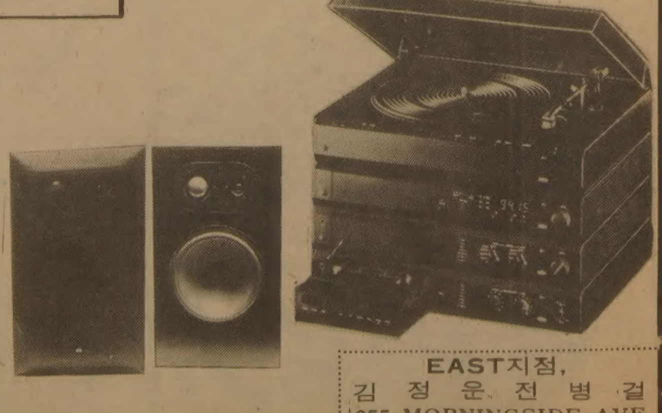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 WESTON / HWY 401 / HWY 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M1E 3E6
Kingston Rd. / Morningside Ave. / Lawrence Ave. E.
282-2820

希、35년만에 左派執權

社會運動黨、總選서 壓勝

나토·EEC脫退 공약

파판드루黨首 "社會主義국가건설"宣言

【아테네18日UPI·AFP=聯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기구및 歐共市(EEC)탈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게오르게·랄리스 現首相의 집권新民主黨(NDP)에 도전했던 그리스의 汎그리스社會運動黨(PASOK)이 18일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중도우파정당이 지배해온 그리스 35년의정사상 처음으로 좌파사회주의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PASOK는 18일 실시된 의석 3백석의 의회선거에서 1백75석을 차지함으로써 1백11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집권NDP를 제치고 그리스의 새로운 집권다수당으로등장했다.

안드레아스·파판드루PASOK당수는 승리가 확정된후 발표한 최초의 성명에서 "그리스국민들을 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것"이라고 선언했다.

PASOK의 의회선거승리에 따라 콘스탄티노스·카라만리스 대통령으로부터 組閣위촉을 받을 파판드루당수는 이날 아테네북방 카스트리의 자택에서 발표한 이 성명을통해 PASOK黨의 이번 승리는 특히 젊은층과 여성들의 지지에 힘입은바 크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정치 관측통들은 PASOK의 압도적 승리가 PASOK가 보여준 그리스 現代政治史上 유례없는 조직적인 선거운동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PASOK는 이번 선거에서 지난1월 그리스가 EEC에 가입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받았던 농촌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받았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아스·파판드루 汎그리스사회운동당 (PASOK) 당수가 18일밤 의회선거에서 압승을거둔후 국내외기자들과 첫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아테네18일AP電送=聯合】

모로코政府軍 전멸 / 폴리사리오攻擊

【알제18日AP=聯合】서부사하라의 전략요충 겔타·제무르를 수비중이던 모로코정부군 1개연대병력 2천6백명이 13일간행된 폴리사리오게릴라들의 공격으로『전멸』되었다고 18일 게릴라측성명이 밝혔다.

폴리사리오의 자칭 사하라國공보상명의로 이날 발표된 이 성명은 정부군연대의 무기고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서부 사하라「3각요충」의 방어선을 돌파하려던 이번 공격의 당초목적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이어 그 이후로 정부군과 게릴라간의 전투는 없었다고 말하고 이번공격의 「정치적 목적」은 진정한 평화를성취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하고있는 모로코정부측의 저의를 폭로하는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단─차드接境지역 偵察 / 埃·수단機 리비아攻擊대비

【카이로18日UPI·AP=聯合】자파르·누메이리 수단 대통령은 18일 이집트와 수단항공기들이 지난수일동안 리비아의 공격대상이된 수단─차드국경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을 벌이고있다고 밝히고 『리비아 영토내에서의 전쟁수행을위해』對 리비아선제공격 가능성을 또 다시 위협했다.

누메이리 대통령은 이날발행된 카이로주간 로세·엘·유세프誌와의 회견에서 이집트와 수단이 지난76년 체결된 방위조약에 따라 수단·차드국경상황각시에 협력하고 있으며 관대한 사막영토에 필요한 공동정찰을 상호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中東평화協商대상에 / PLO參與계획추진

뉴스위크誌 보도

【워싱턴18日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中東평화협상에 참여시킬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美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8일 보도했다.

뉴스위크지는 리처드·닉슨前美대통령의 이른바『私的인 中東순방』도 사실은 이같은 레이건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아랍지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뉴스위크지는 또 지난번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닉슨前대통령은 카이로에서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과 PLO를 中東평화협상에 끌어들이는 문제에 관해 토의했다고 말했다.

中共·自由中國 평화통일 / "外國서 支援환영" / 페킹·리뷰紙밝혀

【北京19日路透=聯合】중공과대만간의 국공합작통일은 비록 중국내부문제에 속하나『외국친구들』이 각종수단을동원, 평화통일을 도와준다면 환영을 받을것이라고 관영영자지 페킹·리뷰지가 19일밝혔다.

이잡지는 정치부장 안·지구오가 쓴 문답식칼럼에서 중국통일은 중국인들이 직접 해결해야할내부문제이며중공은 외국이 대만의 본토복귀를막기위해 개입하거나 장애물을설치하는것을 배격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외국친구들이 중국의 평화적통일촉진을 위해 지원한다면 이를 환영할것이라고 말했다.

次期 이란수상에 / 베라야티議員 유력

【테헤란19日AP=聯合】차기 이란수상은 알리·아크바르 베라야티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라프산자니이란의회의장은 신임수상후보로 집권 회교공화당소속 베라야티의원을 천거, 의회로하여금 20일 인준표결하도록했다.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 수상이 폭사함에따라 지난9월 1일 취임한 모하메드·레자·마다비수상이 이끄는 현 이란정부는 15일 하메네이대통령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었다.

◇미테랑迎接받는 레이건 레이건 美대통령(右)이 19일 美버지니아州 요크타운항에서 2백년전 美·佛연합軍의 大勝을 기념하기위해 프랑스군축함 드·그라스號에 오르면서 프랑스대통령(中)의 영접을 받고있다。【요크타운(美버지니아州)19日UPI電送=聯合】

素月에 金冠文化훈장 결정

銀冠엔 李杜鉉·南宮、寶冠 金白峰씨

◇金廷湜씨 ◇南 宮씨 ◇李杜鉉씨 ◇金白峰씨 ◇韓萬年씨 ◇申瞳集씨 ◇趙炳惠씨 ◇朴敏鍾씨 ◇張民虎씨

藝術賞 수상자도

반세기전에 타계한 「한국의 국민시인」金素月(본명 廷湜·1902~1934)에게 金冠문화훈장이 수여된다。정부는 19일 81년도 문화훈장 서훈자로 金冠에 金素月을비롯, 銀冠에 李杜鉉교수(57·서울大사대·민속학)와 南宮화백(70·서양화) 寶冠에 金白峰교수(54·경희대·무용)를결정했다。

또한 제13회 대한민국예술상수상자로는 문화부문에 韓萬年씨(56·도서출판 一潮閣대표) 문학부문에 申瞳集교수(57·啓明大·시인) 미술부문에 趙炳惠화백(65·서양화) 음악부문에 朴敏鍾교수(63·서울大음대학장·바이얼린) 연예부문에 張民虎씨(57·국립극장극단단장)를 각각 결정했다。

波權座 표면상으론「握手교대」

카니아辭任과 야루젤스키登場이 意味하는것

◇18일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로 새로 선출된 야루젤스키(左)가 사임한 스타니스와프·카니아의 축하를 받고있다。【바르샤바18日AP電送=聯合】

國際焦點

累積된 經濟難 불씨

對勞組 온건路線 硬化할지도 / 蘇선 強硬 올소프스키登場바라

18일 전격단행된 폴란드당제1서기의교체는 표면적으로는 온건파끼리의 권좌이양이란 특징을 띠고있다。야루젤스키신임당제1서기는선임카니아밑에서수상으로서다같이사회적개혁및국민적 화합이라는 온건정치노선을추진해온인물이기때문이다。따라서 큰정치적변화가없으리란것이일반적평가다。카니아는 현정치경제적난국을 타개할길이 막연한데다가 당내강경파및 바르샤바조약국들이 자신의 對노조유화정책에 심한 반발을 해옴에따라 더이상 최고권좌를 지탱할수없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실각은 놀라운 사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궁지에 몰린 카니아로서는 그와 정책노선을 같이하는 야루젤스키에게 권좌를양보,국가질서를 회복할수있게하는것이 당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온건노선의 기수 交代라는 점에서 야루젤스키의 당제1서기피선은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그가 지난 2월 국가적난국을당해 수상으로 기용됐을때와 마찬가지 경우라는 평가도있다。

카니아의 사표가 당중앙위원 2백명중 54%의 승낙밖에 못얻었다는점과 야루젤스키의 당제1서기 지명이 경쟁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어쩌면 자연스런 대권양위의 일면을 설명한는것이겠다。

이번에 열린 3일간의공산당중앙위 제4차전체회의에서 당내강경파들의 카니아에대한비판은무엇보다 경제적 난국을 해결못하는 정치적무능에 집중됐다。폴란드는 현재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식량및 에너지난에 봉착,서방측의 원조없이는 올겨울을 보내기가 힘겨운실정인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對노조관계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채 전국적 파업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모스크바주재 서방외교관들도 카니아의 주된 몰락원인이 바로 폴란드경제의 심각성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그리고 강경파들의 비판은 또한 노조에대한 카니아온건노선의 일방적 양보에 집중됐다。카니아는 강경파의 도전을 받고 노조에 겨울을 맞아 파업권의 잠정 중지를호소했지만 강경파의 드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웠던것같다。그리하여 카니아는 권좌를 야루젤스키에 이양하면서 강경파들의 비상사태선포요구를 거절、온건노선을 재확인한후 동일노선의 야루젤스키에게 대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지난80년8월 파업사태이래 세번째로 폴란드 최고지도자가된 야루젤스키신임 당제1서기는 舊유화노선에 일익을 담당해온터이나타협정책을다소경화할것으로 예측된다。

70년 노동자 폭동때도발포에 반대、고물카의 실각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로서 국민적 존경심을얻고 있는 그지만 군인으로서의 엄격한 면도있고 수상재임시엔 폭력과 반소행동에대한 저지를 명령했으므로폴란드를 무정부 상태로 놔두지 않을것은 틀림없다。따라서 군출신의 제1서기취임은 앞으로 군부의역할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카니아때보다도 강경책이 취해질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니아의 사임이정부─노조간의 현안협상이 취해지고있는때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도 정부의 對노조강경책이 예견된다。노조는 물가동결、석탄증산、상설경제위원회설치등 對정부협상이 깨질 경우 오는22일을 기해 전국적파업을 경고하고있는만큼 새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질지모른다。

그리고 이번 카니아사임에는 소련의 영향력행사가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소련은 카니아온건노선에 불만、지난6월 경고조치에 이어 9월중순 최후통첩을 보내 폴란드의 反蘇를 규탄했었다。7월 폴란드 임시당대회때는 노골적으로 카니아제거를 시도했던 소련인지라 야루젤스키의 등장에 다소 만족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련은 온건파인 야루젤스키보다는 정치국내 강경파인 스테판·올소프스키가 당제1서기에 오르길더욱바라고있었던것으로 밝혀졌다。폴란드 현당내분위기는 아직도 소련서 거리가 멀다는게 반증되었다。【金善敎기자】

波제1書記 야루젤스키

스타니스와프·카니아에 이어 폴란드 공산당제1서기에 선출된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58)은 지난 68년부터 국방상을 역임했으며 71년이래 카니아의 측근으로 활약해왔다。

대부분의 폴란드 공산당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1923년 주블린省 크로우의 한부유한 지주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943년 당시 소련내에서 활동중이던 親共폴란드軍에 가담했다。

68년부터 國防相역임한 카니아側近

1945~47년폴란드 내 반공세력 소탕작업에 큰 공적을 올렸던 야루젤스키는 1956년 불과33세의 나이에 최연소소장으로 진급했다。

1947년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1960년 폴란드軍정치국장으로 임명돼 두각을 나타내기시작、그이듬해 副국방상에 올랐으며 1968년 국방상으로 승진했다。

1961년 의회에 진출한 그는 70년 후보위원으로 黨정치국에 들어갔으며 71년 정위원이 됐다。

야루젤스키는 지난 2월 11일 국방상과함께 수상직을 겸임케 됐다。

지난 8월 크리미아에서 열린 브레즈네프─카니아 회담에도 참석했던 그는 9월 자유노조가 분명한 사회주의노선을 채택하고 폴란드의 동맹국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한바 있다。【바르샤바=AP】

얼굴

希 次期首相 파판드루

뛰어난組織力지닌 天賦的인 연설가

美캘리포니아大의 전직 경제학교수였던 62세의 파판드루汎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 당수는 산적한 국내의 경제·사회문제를 안은채 수상직을맡게된다。

그리스對外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기치를 내걸고 이번 선거에 뛰어든 파판드루당수는 정치와 인연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게오르게는 지난63년부터 65년까지 수상직을 역임했다。

천부적 재능을지닌 연설가로 정평이나있는 파판드루는 자기 아버지로부터군중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물려받았다。

그는 뛰어난 조직력으로 자신의 신봉세력을 정한뒤 74년에는 바로 오늘의 PASOK黨을 창설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PASOK는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그이유는 하나의 운동은민중속에서 자라나나 黨은 고정된 상태로 머무르기때문』이라고 밝힌적이 있다。

파판드루는 1919년 에게섬의 東部에 위치한 치오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년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44년 美해군에 입대할때까지 하버드大의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아테네=AP】

國際赦免委비난

"FBI가 犯罪조작"

美國내 소수民族지도자 裁判때

【샌프란시스코18日UPI=聯合】國際赦免委(앰네스티·인터내셔널)는 최근 미연방수사국(FBI)이 미국내 소수민족집단의 정치적 인물들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재판과정에 침투,증인들을괴롭히고 변호인측의 증거제시를 저지하는등 이들의 범죄를 조작,유죄판결을 받게했다고 주장했다。

國際赦免委는 지난 13일 144페이지에 달하는『미국내 현사재판에 대한 국내정보활동의 영향에 관한 조사위원회설치제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FBI가 과격파 흑인 민권운동단체 블랙·팬더(검은표범)의 지도자 엘머·프래트와 인디언 지도자 리처드·마샬 그리고 레너드·펠티에등 수명의 소수민족지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관여했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美행정부는 FBI의 여러 정보활동에 의한 불법적인 집행이 어떻게 이들을 유죄로 만들었는지를 조사하기위한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海外토픽

高學歷者 신문애독

★대부분 TV뉴스의존

사람들은 세계·정부·정치·스포츠등과 관련된 뉴스를대부분 TV를 통해 접하고 있으나 지방뉴스와 소비자안내·연예정보등은신문에더많이의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전국각지의 1천1백70명과 로스앤젤레스 지역거주자 9백4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결과▲교육정도와 수입액이 높을수록 뉴스와 정보를 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TV뉴스가 더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자신을 정치적인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수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약간더많은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특히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TV뉴스를 보수적이기 보다는 진보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로스앤젤레스=UPI】

축구觀戰 平生금지

★選手코뼈 부러뜨린罪

이탈리아의 한 열광적인 축구팬이 원정팀선수의 코뼈를 부러뜨린죄로 법원으로부터 축구경기장에서의 관전을 영구적으로 금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롤란드·본시(27)라는 이름의 축구팬은 자기고을팀인 리미니팀과 원정팀간의 경기를 관전하던도중 갑자기 그라운드에 뛰어들어 원정팀선수의 코뼈를 부러뜨렸다는것。

법정에서 본시는『우리고을팀은 나의 전부다。우리팀을 조롱하거나 상대팀을 응원하는사람은 용서할수없다』고흥분。【리미니(이탈리아)=AP】

◇조깅용 自轉車 희안한조깅용자전거─일본의 상업근로자아이디어 콘테스트에 18일 출품된 신종자전거。고안자가 뛰면서 달리는 자전거를 직접타고 시범을 보이고있다。【東京19日AP電送=聯合】

美術5천년展 / 文化財還國

李文公 "우리創造性·美國에 떨쳐"

한국미술5천년전의 전시문화재 2백64건 3백54점이 미국에 나들이간지 2년7개월만에 18일 무사히 돌아왔다。

李光杓문공부장관은 이들문화재귀환에 즈음하여 그동안 이들문화재가 미국조야의 큰 환영을 받는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 웨이트레스 구함 ✱

NEW REDUCE PRICES

새로운경영, 새로운메뉴, 새로운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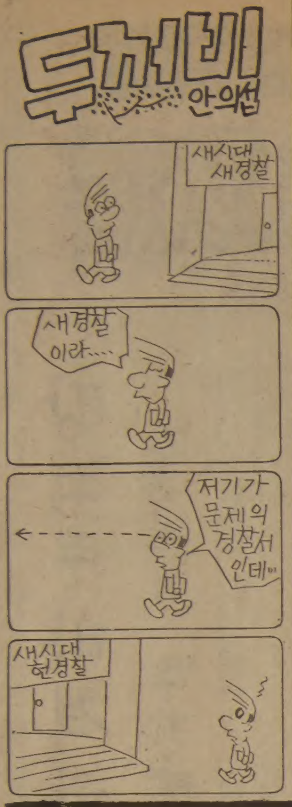
한국요리
- 즉석불고기, 멍게
- 선지피해장국, 생선회

중국요리
- 본고장의 진미, 중국식 부페
- 매일 각종신선한 SEAFOOD써비스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가수 신현희 양
— 과거 미8군 무대에서 활약
— 오리엔탈 쥬얼스의 리더
— 유럽순회, 미국, 남미 순회공연
— 가수경력13년
— 악기(기타·쌕스폰)연주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다른警官 幇助여부 搜査

河刑事 "證書 주웠다고 하라" 조작企圖

尹景花씨의 예금통장 절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9일 통장을 빼돌린 河英雄형사(40)가 사건이 노출되자 유출경위를 다른방향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내부의 방조관계와 또다른 피해품이 있는지를 수사중이며 이와관련, 尹씨의 예금관계에 대해 전면재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의하면 河형사는 범행과정을 진술하면서 지난15일 예금증서의 출처가 문제화되자 처음 예금증서를 말했던 徐光錫씨(40)를 만나 자신이 이사건과 관련이 없는것처럼 꾸미기위해『徐씨가 예금증서를 길에서 주운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徐씨가 검거될경우 죄명도 점유이탈물 횡령밖에 되지않아 형을받아도 가벼우며 그에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것.

▲徐씨는 처음 河형사의 각본에 동조했다가 한국일보에 사건이 크게 보도되자 尹景花씨 사건과 관련, 중벌을받게될것이 두려워 조카 徐瀨一씨(26)를 시켜 검찰에 출두, 진상을 폭로하게했다.

시경이 河형사의 범행을 방조한 내부의 주변인물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는것은 ▲尹景花씨 사건을 직접수사한 河형사가 예금증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잘알며 ▲은행에 나타나면 곧 신고돼 수사를 받을것을 잘알고있는데도 예금인출을 기도했다는점등에 근거를 두고있다.

경찰은 또 尹景花씨의 현금, 패물, 예금통장등이 보관됐던 캐비닛열쇠를 수사본부가 高淑鍾여인(46)을 범인으로 구속송치한 8월17일이후에도 河형사에게 보관시키고 있었다는점과 사고예금증서가 尹씨의 시체가 발견된8월4일부터 1주일이상 지난때에 발견됐기때문에 그사이에 河형사이외에 다른사람에의한 피해품도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河형사가 문제의 예금증서를 훔친것은 지난8월26일 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河형사는 高淑鍾씨를 구속송치한 2일뒤인 이날 검찰로부터 尹景花씨의 유품을 유족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받은 金鍾潤수사과장의 지시로 형사계 숙직실에서 혼자 물건과 예금증서를정리하다 문제의 증서3장이 초동수사때 목록에 빠져있는것을 알게되자 이를 호주머니에 넣었고 이3장을 뺀것만가지고 최종목록표를 작성했다는것이다.

天主敎區設定紀念 信仰大會80만人波

80만명의 신앙인파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을 기념하는 천주교 신앙대회가 18일 서울 汝矣島대광장에서 열려 이땅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우리민족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될것을 엄숙하게서원(誓願)했다。

◇한국천주교회사상 전국의 사제들과 신자들이 한자리에모인 집회로는 가장 대규모였던 신앙대회。전국에서 80만의 인파가모여 우리민족의 현재와 미래를위한 빛과소금이 될것을 다짐했다.

한국일보 詩壇

他關詞

曺秉基

밤새 보통 급행을 타고
시골을 다녀온 누이가
덜깬 눈썹을 부비며
고향을 풀어 놓는다。
햇고추 너댓근、
참깨 한됫박、
쑥절편은 막내놈이
한 입에 문다。
어느덧 방안 가득히
방천둑 그 물소리、
어머님 굵은 손마디 끝에
통겨나는 물방울 소리。
풀꽃위에 내리는 이슬이나 봇꽃이
죽었다 되살아나는 바람인듯이
이 가을은 둥근달
내것이었으면 싶다。

◇동료의 손에 收監되는 河刑事

동료형사들의 손으로 南大門서 유치장에구속 수감되고있는 河형사。허탈한표정으로 『국민과 동료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憤怒·허탈의 48시간

河刑事범인발표서 收監까지

누나집서 도피직전 市警刑事마주쳐

모든것체념한듯 河刑事 카메라앞에

尹景花씨의 예금증서절취범이 피살사건을 직접담당했던 河英雄형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17일부터 河형사가 동료형사의 손으로 수갑이 채워져 수감된19일까지 48시간은 경찰사상 가장 침통했던 순간이었다.

17일상오11시께 서울지검을다녀온 尹桂璇서울시경형사과장은 徐瀨一씨(26)의 진술로 河英雄형사의 범행전모를 파악,『그를잡으라』고 시경지능계에 지시했다.

河형사를 잘모르는 사람으로 구성된 형사대는 낮12시30분께 河형사가숨어있던 堂山洞 큰누나집에들이닥쳤다。 큰누이등 가족이 없는집에 혼자 앉아있던 河형사는 신분을 감추었으나 곧체포됐지만 조금 늦었으면 놓칠뻔했다。

河형사는 수십만원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시골로 달아나려던참이었는데 조금 숨어있다보면 잠잠해질것으로 보았다는것이다。

河형사의 범행이 보도되면서 17일하오 서울시경안팎은 치욕과 분노로 들끓기시작、모든 경찰관들은 침통한 표정들이었는데 하오3시께 시경기자실에서 河형사의 범행을 발표한 朴在植시경국장은 굳은표정으로 범행과정만 짤막하게 밝히고 나가버려 경찰전체의 분위기를 읽을수있었다。

하오6시께 河형사가 조서를 받기위해 시경강력계에연행되자 경찰관들의 모욕감은 일시에 분노로 폭발해 버렸다。 상기된 표정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던 형사들은 일제히 일어나『야×××야』『6만경찰에 사죄하라』『말좀해봐』라고 아우성을쳐 기자들이 취재를할수없을정도였다。

李尙漸용산서장과金鍾潤수사과장등 4명의 관련간부가 직위해제되자경찰의표정은분노에서 허탈로바뀌었다。지휘감독책임을 묻는 인사조치에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동정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뒷수습에나선 서울시경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8일하오4시 23개경찰서장과 시경과장들을 소집회의를열었다。

朴在植국장은 이자리에서『나를 포함한 지휘관들부터 반성하고 이사태를 수습해야하며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행이 나오지않도록 노력하자』고 목멘소리로 훈시、19일중으로 각경찰서와 직할대는 지휘관이 책임지고 특별교양을 실시해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초상집같이 암울한분위기에 싸인 龍山경찰서는신임 金相明수사과장이 하오6시 형사들을 집합시켜『국립경찰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장본인인 우리 龍山경찰서는 국민에 사죄、새로운 경찰을 건설하는 기분으로심기일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河형사의 범행수사를 마친 시경은 19일상오 서울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저녁 조사를마친 河형사는 南大門경찰서 형사보호실에서 대기중이었는데 이날하오 1시5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하오2시20분께 시경형사2명에의해 유치장에 수감됐다。

형사들에 양팔을 잡힌채보호실을 나선 河형사는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모든것을 체념한듯 보도진의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았는데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면목이 없다。윗사람과 동료들에게 죄송스러울뿐』이라고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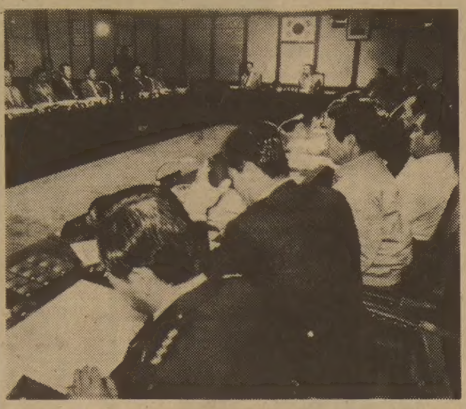
「自白수사」그만 人權존중할때

尹甲富—女大生사건을 보는 各界의 意見

"刑확정까지는 無罪추정" 원칙지켜야

物證·증인확보등 科學수사 風土절실

주먹구구에 의한 육감수사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경찰도 이제는 범인을 설사 잡지못하는 한이있더라도「인권수사」를하는 기본자세를 갖추어야한다。高淑鍾씨(46)의 고문에의한 자백설、상경여대생 朴尙恩양사건의 장기연행 시비에 이어 터진 河英雄형사의 어처구니 없는 독직사건을 지켜본 경찰내부와 법조계인사、시민들은 이같이 제안했다。河형사가 몰고온 파동이 경찰내부에「인책사태」를 몰고왔지만 책임을 묻는선으로 끝나지만 말고 차제에 해방이후의 고질인「자백수사」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참다운 민주경찰로서의 체질개선을 혁신적으로 이룩해 바람직한 경찰상을 재정립해달라는 소망인것이다。더구나 21일로 32회 경찰의날을 맞았으니 역사적인 개혁의 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여론까지 따르고있다。



◇침통…市警 간부회의　서울시경은 일요일인 18일 긴급과·서장회의를 소집, 실추된 위신과명예회복을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할말을 잃은듯 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도 침통하기만했다。

安明基변호사(49)는『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기본자세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는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피의자란 으레 범죄를 부인하게 마련이라는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백아닌 다른 증거방법、즉 물적증거나 증인등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추궁하도록 해야하며 간단한것같지만 어려운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해야할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金忠一씨(40)는직접적인 물적증거 없이、심증에 의해 자백만을 강요할게 아니라『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형소법상의 대원칙을지켜 피의자와 지능및 기술대결을벌이며 방증수집에 노력하는것이 인권、과학수사의 기틀이 되는것이며『과학수사가 반드시 장비현대화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이러한 대원칙을지켜 나가는데서 이루어 지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업에 종사하는 安武一씨(46)는『무엇보다도 우리 수사경찰에 이러한 기본자세가 확립될때만 심증이나 육감에 의한 수사가 아닌 인권수사 과학수사의 풍토로전환해 갈것이다』라고강조했다。

文珍錫변호사(47)는 헌법11조 4항의「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할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형사소송법30조1항의「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있다」는 규정을 예로 들면서『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이 엇갈리는 점과 현실적 이유등으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중인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文변호사는『명문화돼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등사에도 어려움을 겪는현실이므로 변호인이 경찰신문때나 현장검증시의 입회는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진정한 인권수사를 위해서는 중요사건의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할수있도록 법조문에 명문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형사지법의 한판사는『우리경찰이 너무 강력사건 해결에 매달린나머지 강제수사의 폐단이 고정화됐고 최근사회조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그실상이심각하게 노출되고 부각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강력사건 검거율이 다소떨어지거나 상당수의 범인을놓치는한이 있더라도 무고한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대원칙이 우리수사경찰관각자의 머리속에 자리잡을수있도록 자질교육이 선행돼야만경찰의 앞날도 밝을수있다』고 지적했다。

河형사 收監

연행된5명 관련없어訓放

서울시경은 19일하오 尹景花씨(72)의 예금증서 절취사건과관련、용산경찰서 河英雄순경(40)을 직무유기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시경은 그러나 이번사건조사과정에서 연행됐던 徐光錫씨、徐瀨一씨、趙仁幸씨、李泰鉉씨、陸秉龍씨등5명은 河형사의범행과직접관련이없는것으로밝혀내고모두훈방했다。

龍山警 수사과장등 3명 파면

치안본부는 19일 河英雄형사의 예금증서 절취사건에대한 책임을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울龍山경찰서 수사과장 金鍾潤경정、형사계장 梁靈錫경감、형사2반장 尹鍾鉉경위등 3명을 파면키로했다。또 龍山경찰서장 李尙漸총경에대해서는 같은날짜로 사표만 수리키로했다。

大學야구 大會

高麗大·東亞大가 4강에합류

漢陽大-中央大、高麗大-東亞大가 81년도 시즌을 마감하는 제36회 대학야구 선수권대회의 결승진출권을 가리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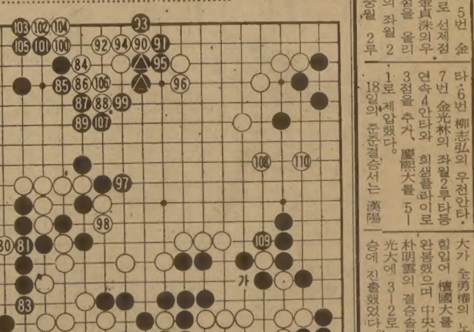
高麗大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준결승에서 1회초 5번 金鎬根의 우전적시타로 선제점을、3회초 4번 金貞洙의 우월 2루타로 결승점을 올리고 6회초 金貞洙의 좌월 2루타·金鎬根의 좌중월 2루타·6번 柳志弘의 우전안타·7번 金光林의 좌월2루타등 연속4안타와 희생플라이로 3점을 추가、慶熙大를 5-1로 제압했다。

18일의 준준결승서는 漢陽大가 全勇權의 노히트노런에 힘입어 檀國大를 4-0으로 완봉했으며 中央大는 9회말 朴明雲의 결승솔로호머로 圓光大에 3-2로 신승、준결승에 진출했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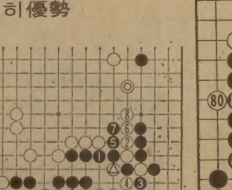
第5局 第5譜 80~110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1敗〉
黑(4段) 姜勳〈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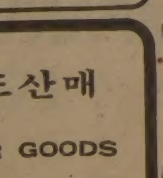
黑▲표들의 축머리로 白집을 갈라버린 姜4단은 이시점에서 추격의 실마리를 잡은듯이 느껴졌다。 白은 일단 80、82를 선수하더니(국후검토때는 白80을 두지말고 직접 82가 좋았다는 중론) 白84이하로 움직이기시작했다。여기서도(白86은 무리) 직접88로 가볍게 뛰어나갈자리라는 평을 듣게되었지만、좌우간 피차 이白은 106까지재자리 삶이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한수한수에 시간을 마냥 소비했다。그러나 白쪽이 黑보다 약 1간30분을 더 소비하여 시간면에서 장차 곤욕을 치르지않나 예상되 에 이예상은 맞았지만 이과정에서 黑97、99가 姜4단답게 기민한 수순。그리고 107에 막게되어 黑은 대세를 상당히 만회했다。

白,여전히優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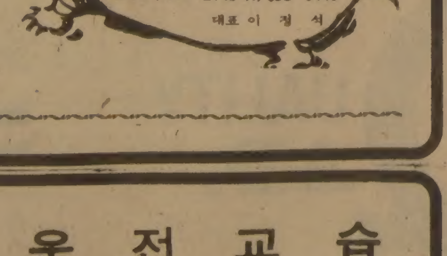


여기서 白108의 호착이 떨어졌다。이수는 멀리白「가」를 노리고있으니 黑은 억울하지만 109로 때낼수밖에 없다。白「가」를 당하면、참고도 △표에대하여 黑1은 절대。다음 白2이하8의 수단이 ◎표(실전보108) 때문에 성립되어 黑대마가 위험하다。 이육고 白110에 뛰어 여전히 白이 우세한 국면이다。【一凡】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202A .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 439-1335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 ·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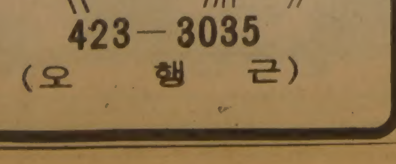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West Germany
Rodenstock
● 고급안경취급
●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 월~토 9 : 30AM~6 : 00PM
● 월~토 11AM~7PM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thurst Bayview Bloor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㉗

국방장관 申性模

6·25를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인물중에 申性模가 있다. 6·25당시 국무총리서리이자 국방장관으로 李承晩 대통령 다음가는 정부의 제2人者였던 申性模.

물론 소련의사주를 받은 北傀가 南侵야욕을 노렸던만큼 6·25는 國防總責인 申性模가 아니었더라도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니었다면 悲劇의 양상은 달라졌을것 같다. 『안심하라』는 李 대통령의肉聲을 녹음해 후퇴길의 국민을 속이는 방송을하고 한강교를 미리 爆破해 버려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거나 敵治下에서 고통을 당하게한 책임은 바로 申에게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그를모함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시의 실상이 바로 그랬다.

국방장관때 北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보가 보고될때마다 이를외면, 대비를 소홀히 했고 「平壤에서 점심, 新義州에서 저녁云云」하며 말로만 허풍을치던 인물이 그였다.

6·25직전 아무리 무기를 달래도 「38線은 염려없다」「전쟁은 안터진다」며 주지않던 미국의 맹목적인 極東정책에 점점심각해져간 눈앞의 위기에도 배한척으로 平壤을 점령할수 있다고 豪言한 국방장관의 「허풍戰術」이 잘도 어울렸으니 38線이 온전할리가 없었다.

대통령肉聲녹음 後退길 국민 속이고
北에 情報준다 소문…落淚장관別名도

당시北엔 申과 인척관계인 左翼系한글학자 李克魯가 있었는데 그가 申과 비밀리에 연락이된다는 소문이 많이 떠돌았다. 그관계로 정보가 北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었다.

申性模와 당시 내무장관인 金孝錫과는 무척 가까왔다. 그래서인지 치안의 중요정보가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심심치않게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수 없는 의미심장한 얘기였다. 金孝錫은 6·25당시 서울에 남아있다가 北으로가 소위 저들의 對南선전기구인 祖統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

申性模가 어떻게 해 장관으로 기용됐는지는 나도 확연히 알수 없다. 그를 불러들이고 추천한 인물이 李範奭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뿐 李박사가 어찌 그를 重用했는 지는 이해가 안간다. 申을 추천했던 李範奭은 얼마뒤 총리직을 물러나고 申이 그자리에 들어섰는데 李範奭은 申性模와 金孝錫에의해 모략을 당했다는 것이다.

◇北傀의 全面南侵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豪言과 허풍으로 국민을愚弄·誤導했던 申性模.

내가 申을 처음 본 것은 미국 유학시절 그가 뉴욕에 있는 韓人교회에 들렀을때다. 그는 당시 영국선박배의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그배를 타고 뉴욕에 몇번 들렀었다. 교민들사이에선 선장으로 통했다. 申은 배를 타고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上海임시정부에도 드나들었다.

申은 上海臨政에서 創造派니 改造派니하며 싸움을 벌일 때 李承晩박사를 모함하고 逐出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배를 타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上海, 北京등지를 다니며 韓人들과 교제를 하고 마치자신이 애국지사요, 독립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가 上海臨政에 어떻게 파고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申은 日帝때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인 마루야마(丸山鶴吉)와 관계가 깊었으며 마루야마의 비밀후원으로 上海臨政에 드나들었다는 얘기도들었다. 그가 또 총독부의 日人관리덕으로 공부했다는 말도있었다.

申性模는 48년12월 나의후임으로 내무장관이 되고 다시 3개월뒤엔 국방장관으로, 1년뒤엔 국무총리서리로 올라섰다. 그는 李 대통령앞에서 『대통령각하, 잘돼갑니다』를 수없이 읊조렸다. 6·25때도 그랬다.

그는 카멜레온이 변화무쌍한 保護色을쓰듯 자신의 실체이 드러나거나 窮境에처하면 곧잘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에게 읍소를 하고 매달렸다. 세상에선 그래서 그를 「落淚장관」「泣訴장관」이라고불렀다.

나는 申의 사람됨이 너무나 소인이고 간사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성 밝기는 그만이었다. 내가 내무장관 사표를 내고 집에와 있을때 후임장관이된 申이 찾아와『대통령각하께서 찾아보고 전임자의 뜻을 잘받들어 일하라고 말씀했다』면서 연신『잘 부탁한다』를 연발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奸氣를 느꼈다.

申은 白凡 金九선생이 암살당했을때 京橋莊빈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각료다. 申은 白凡암살때 배후인물로 알려졌던 金志雄과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申이 국방장관이나 총리를 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경륜이있는 인물이 못된다는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감당할수 없는 직책을 맡아 일을 그르쳤다. 어쩌면 國難은 숙명적이었는지도 모른다. 李 대통령의 人事정책중 최초최대의 실패는 申의 기용이라고 생각한다.

申은 金孝錫,李起鵬등과 같은 「88구락부」의 멤버였다. 故人의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李起鵬의 정치행적은 또 어떠했는가. 대통령의 눈을 흐리게하고 政局을 오염시킨 그네들의 행적은 제1공화국을 병들게한 가장 큰 毒素였다. 아울러 申性模의 閣僚기용,그것도 危難때 발탁은 適材가 아닌인물이 重責을 맡았을때 얼마나 국민과 국가에 害를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준엄한 교훈이라고 할수있다.

日曜日 멕시코·자카르타·홍콩·몬트리올·방콕서

한국스포츠… 잇단 勝戰譜

강적쿠바격파…2連覇도전
世界女子J배구 中共·페루와 결승진출놓고격돌

한국선수들이 일요일인 18일 南北美와 아시아등지에서 열린 배구·하키·핸드볼등 청소년 구기종목과 기록종목인 사격및 테니스에서 승전보를 전해왔다. 멕시코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세계주니어 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이 강호 쿠바에 3-0으로쾌승한데 이어 캐나다마저 스트레이트로 제압, 대회 2連覇에 강력히도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3회 아시아 여성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金良子선수(기업은행)가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는가 하면 제2회월드컵남자주니어하키 아시아·오세아니아예선(홍콩)전서는 中共과의 사상첫대결에서 6-2로 승리하는등 통쾌한 휴일을 장식했다. 한편 방콕서열린 아시아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이 남녀단식과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女子 伊오픈탁구 單式 휩쓸어

【멕시코시티=聯合】한국여자청소년배구팀이 3전 전승으로 제2회 세계여자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 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18일 새벽 (한국시간) 이곳 프에블라 체육관에서벌어진 B조예선리그 2차전서 강호쿠바를 3-0으로 완파하고 19일의 예선최종전서는 장신의 캐나다마저 3-0으로꺾어 전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B조2위를 차지한 쿠바와함께 준결승리그 B조에속해 예선D조2위의 中共(2승1패)과 21일, D조수위팀 페루(3승)와 22일 각각대결, 결승리그 진출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亞洲女性사격 金良子 아시아新…優勝

◇金良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있는 제3회 아시아여성및청소년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金良子(기업은)는 여자공기권총서 382점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고 선수단이19일 알려왔다. 金良子는 中共의 가오치아민이 갖고있는 아시아기록 378점을 4점 경신했다.

또한여자공기권총단체전서 한국은1、115점으로우승했고, 여자공기소총단체전서는 1、121점으로 우승했다. 그리고 공기소총 개인전서 孫玉粉(기은)은 37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월드컵예선 男子J하키 中共 6·2로 격파 1승1무

홍콩에서 벌어지고있는 제2회 월드컵 남자주니어하키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인 18일의 2차전에서 한국은 中共을 6-2로 대파했다.

한국은 17일의 1차전에서는 일본과 2-2로 비겼으나 21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이기면 각조상위 2개팀이 오르는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하게된다.

홍콩 킹즈파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일째 경기에서 한국은 전반6분 중공에 선취점을 허용했으나 鄭成鎬와 李元錫(이상 공주사대)이 각각 2골을 따내는 수훈으로 6-2의대승을거두었다.

세계女子J핸드볼 和蘭꺾어…6強 가능

【몬트리올(캐나다)=聯合】한국 여자주니어핸드볼팀은 19일 몬트리올에서 벌어진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예선B조2차전에서 유고에 27-22로 분패 1승1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은 18일의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에 19-17로 역전승했다.

한국은 20일에 美國과3차전을 남겨놓고 있으나 지난 12일 전지훈련도중美國을 가볍게 이긴바있어, 6강진출이 낙관시 되고있다.

亞洲테니스 남녀單式·혼합복식金…종합우승

【방콕18日=聯合】한국테니스가 남녀단식과혼합복식에서금메달을 획득, 종합우승을차지했다. 한국은18일끝난81년도 아시아 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남자단식서 金春浩가 태국의 챔피언 파놈코른·폴라드췌르널을 2-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따는등 모두 5종목서 금메달3개,은메달2개, 동메달 3개를 획득, 종합우승했다.

여자단식의 趙恩玉은 준결승에서 동료 薛旻敬을 이긴뒤 결승에서 인도의 남리타·알루왈리아와 1시간10분간 접전을벌인끝에 2-1로 역전승, 금메달을 따냈고 薛旻敬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혼합복식에서 金春浩와 韓恩淑조는 준결승에서 인도를누르고 결승에진출·田昌大·趙恩玉조와 1세트대결을 벌인뒤 7-6으로 승리했다.

◇최종일전적

▲남자단식결승
金春浩 2(6-2 6-3)0 폴라드췌르널(태국)

▲여자단식결승
趙恩玉 2(4-6 6-3 6-2)1 알루왈리아(인도)

▲혼합복식결승
金春浩·韓恩淑 1(7-6)0 田昌大·趙恩玉

한국남녀팀 승리 韓中농구1차전

自由中國 남녀농구 대표팀 초청 韓·中친선농구대회 1차전이 18일 장충체육관서 개막, 한국팀이 모두 이겼다.

한국 남자대표팀은 李忠熙·林正明·金東光의활약으로 自由中國을 91-85로 격파했다. 그리고 여자 금융선발팀은 自由中國에 73-68로 득승했다.

◇제1차전

▲여자
한국금융선발 73(39-37 34-31)68 자유중국

▲남자
대한국표 91(39-42 52-43)85 자유중국

漢陽大 共同3位 퀸즈컵蹴球

【방콕18日=聯合】제11회 퀸즈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漢陽大팀은 16일벌어진 3·4위전에서 방콕은행과 1-1로비겨 공동3위를 차지했다.

漢陽大는 전반35분 FW白南秀가 선취골을 올렸으나 전반 종료30초전 동점골을허용했다.

이어 열린 결승전에서는 泰國의 라즈프라차팀이 中共의 北京팀을 1-0으로눌러 우승을 차지했다.

韓·日배구定期戰에 柳重卓·李龍善포함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日本나고야에서 열리는 韓日정기전에 柳重卓·李龍善(이상 仁荷大)를 남자대표단에 포함,파견키로 17일 결정했다.

배구협회는 지난9월 남자대표를 개편하면서 15명으로 엔트리를 3명 증원했었는데 그동안 이들은 부상으로 中東원정및 훈련서 제외됐으나 어느정도 회복되어 파견키로했다.

劉錫哲대표팀 코치는 柳重卓등 3명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나 배구협회가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 日本원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계大學축구

中央大가 가장 먼저 8강의 결승토너먼트에 올랐다.

中央大는 19일 孝昌운동장서 벌어진 제17회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3일째 C조 경기서 후반 16분 FW 李相九가 결승 골을 올려 忠北大를 1-0으로 물리쳐 2연승을 기록, 남은 1게임의 승패에 관계 없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날 C조의 成均館大는 패기의 江原大와 맞서 전반 趙慶泰(5분)·崔在禹(16분),후반서 姜英喆(34분)의 득점으로 3-1로 승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일어나서 출근하실시간입니다, 사장님"
"알았네, 대그우드"

"간밤에 자네집소파에서 자도록 해줘서 고맙네"
"언제라도 좋습니다, 사장님"

쪽—
"안녕, 여보"

"미안하네, 대그우드… 내가 우리집에 있는걸로 착각했지 뭔가"

流星의 賦 <212>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⑩

나타난 사람은 이정란(李廷蘭)이었다. 사십 안팎으로 보이는 순수한 선비였는데 이두남의 얘기를 듣자 가만히 계남을 관찰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여립과는 선대부터 교분(交分)이 있는 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살았소. 그러나 나는 그사람과 통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형편이오. 그 까닭은 말씀 드릴 수 없읍니다만 만일 당신께서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접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오』

그러자 이두남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김대립이란 사람이 있소. 태인(泰仁)사람인데요, 여립의 처족(妻族)이지요. 몇해 전 그 사람이 시냇가에 정자를 지었다고 해서 놀러갔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지은 정자를 헐고 있었소. 왜 그러나고 물었더니 김대립이 시내 건너편을 가리키더군요. 그곳에 여립이 서원(書院)을 짓고 있는 것이었소. 그렇다고 해서 지어놓은 정자를 헐어버릴것까진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대립의 말은 이랬소. 그 사람, 즉 여립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연 서로 왕래하게 될것이니 그것이 싫다는 것이었소. 이쯤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것이 아니오』

『여립의 인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스승 율곡선생에게 대한 그자의 소행을 보고도 대강 짐작이 되는 바입니다만 여러 어른들이 그자를 배척하는 이유를 좀더 소상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하고 계남이 말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고 어떤 얘기들을 했다.

백광훈(白光勳)은 영암(靈岩) 사람이다. 그 아들 진남(振南)을 데리고 서울에 옮겨살게 되었는데 여립이 진남의 영특함과 순수함을 보고『내 집에 거처를 하며 글을 배우도록 하라』는 권고를 했다. 백광훈은 몇가지 핑계를 만들어 여립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의 백광훈의 대답은 이러했다.

『스승을 선택할 땐 처음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이오』

송간(宋侃)은 무인(武人)이며, 김대립의 조카였다. 정여립이 여러번 청하는 바람에 송간이 하는 수없이 그를 만났다. 그랬는데 지함두, 변숭복, 박연령등이 내외(內外)를 통하고 밤낮으로 여립의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꼴을 보고 돌아온 송간이 김대립에게 가만히 말했다.

『아저씨가 정자를 헌든 것을 보고 조금 과한 짓이다 싶었는데 오늘 여립의 집엘 가보고나서야 아저씨의 견식이 보통 아니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고부(古阜)에 사는 한경(韓璟)은 원래 정여립의 문하생이었다. 한경이 어느날 여립이 사택(私宅)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때 한경은 여립이 한문을 가르치는데 뜻이 없고 잡류들을 상대로 수선을 떠는 것을 보았다. 한경은 여립에게 하직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앉아 버렸다. 그의 아우 척(倜)이 걱정을 하자 한경은

『아무래도 멀쟎아 큰 사변이 날것같다』

고 탄식했다.

이 얘기를 듣고 계남이 뚜벅 말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건대 여립이 역모할 뜻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모든 춤이 외의 生 <231>

趙善作作　金光培畵

돌개바람불다 ㉜

『혹시 내가 한민일이라고 착각한 거요? 그렇대두 그렇지. 여긴 어떻게 알고』

유감독이 다시 말했다. 놀라움과 한탄 따위가 그의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유감독의 질문에 대꾸할 만한 여유를 얻지 못했다.

『혹시 그 친구는 이런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 꼭 그런 거 같은데』

무엇인가 생각하듯 유감독은 잠시 말을끊었고, 비로소 나는 그의말이 귀에 되살아나는듯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이사고에 고의성이 개입되었을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나는 그의 짧은침묵에서 빼앗아냈던 것이다. 그렇다. 그와 유장훈감독은 고의로사람을 바꾼것이다. 내가 또쳐들어올것을 예상한 그가 그대신 유장훈감독을 이방에밀어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 유감독이 다시 말했다.

『암만 생각해도 미수 안을 추궁할일은 아닌것 같군. 변명해야할 사람은 도리어 난것 같소. 어때요? 변명을 내세우기도실은 좀 낯간지러운데, 듣겠소?』

나는 잠자코 있었다. 거부하지 않는 내 태도가 나는그에게 다소곳한 수락을 의미해 주기를 바랐는데,그도 한참동안 잠자코 있었다. 아마 유감독은 나에게 이중으로 충격을 줄 일 따위가 걱정인듯 싶었다.

한참 뒤에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고, 가시가 걸린듯 난처해했다.

『술 탓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밤 둘이는 늦게까지 술을 마셨소. 좀 많이. 그 친구도 나도. 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잘 모를 지경이오. 어제 오후에 미스 윤이랑 권여사는 서울로 갔고, 좀 홀가분한 기분이기도 했소. 여자들이란 여행에 동반하는 일이란 그것도 전혀 맹숭맹숭한 사이로 말요. 따분하고 귀찮은 일이거든. 깨놓고 말해서 자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무를수 있는 술집에 가 진탕 마셨는데, 잠이 깨기 전까지 난 내 파트너였던 여자 애랑 여기 온 줄 알았어요. 헌』

기가 막힌 듯 그는 말 끝에 탄성을 배앝았다. 그런다음 그가 이번에는 속삭이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나미한테서 얼핏 들었는데, 해운대에서 말요. 밤에 미스 안이 몰래 우리들 방으로 갔다는 거요. 여기 와서는 또 미스 안이이곳에 와 있다고도 했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가싶기도 했는데, 이거 참』

그쯤으로 유장훈 감독은변명을 끝낸듯싶었다.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를 훼손할는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했던지 그는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움츠러 들었다.

그러나 나는 유감독이 그렇게 움츠러들도록 버려둘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이사고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확증을 얻어야했으며, 그래야만 그를 옴짝달싹못하게 추궁할수가 있었다. 비로소 나는 입을 열었고, 유장훈감독을 추궁했다.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데요』

『글쎄, 어딘가에서 자겠지. 함께 여기까지 온듯싶기도하고…둘이 다 너무 취해가지고…』

머리를 긁는지 유감독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이방에까지 함께요? 그런데 그분만 슬그머니없어져 버린거여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비즈네스는 전화가 바빠야 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는 귀하의 전화를 바쁘게 해드립니다.

QUALITY AD. = QUALITY. COMPANY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533·2361~4　광고부일동 : 송광호, 최성조, 곽영신

서울식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합니다—

	REG.	SPEC.
● 불고기등심 최상급 Lb.	2.69	2.20(10파운드제한)
중 급 Lb.	2.49	1.96
● 갈 비 Lb.	1.69	1.29(BOX제한없음)
냉동갈비 Lb.	1.49	1.05
● 소 꼬 리 Lb.	1.35	.95
●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 B품	10.50	7.40
● 명 간 장 1 gal.		6.90
● 양 잠 피 1 kg	2.25	1.80
●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FREE (곧 도착예정)		
● 삼양냉면 1박스 5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청수냉면 1박스 2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오징어젖 Lb.		.80(특별가격)
● 멸 치 젓 Lb.	2.99	1.99
● 어리굴젓 Lb.	4.90	2.90
●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할인		
● 마늘 · 생강 ---- ---- ---- ---- ---- ----		1.45(특별가격)
● 찹쌀고추장	2.50	1.99
● 된 장	1.50	.99
●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 에 드림		
● 물 미 역	1.3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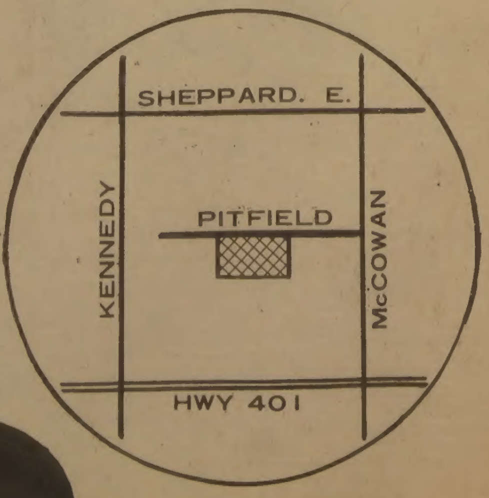
●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FREE

●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FREE

●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GRAND OPENING SPECIALS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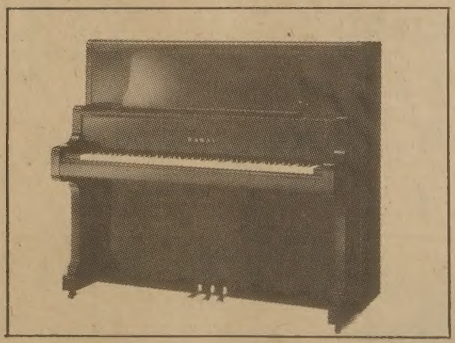
PIANO TECHNICIANS SAY "KAWAI NOW LEAD THE FIELD IN NEW GRANDS & MAKE THE BEST UPRIGHTS" REPRINT HOUSE & GARDENS - APRIL 1980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있는 저희 KAWAI KEYBOARD 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 하나의 KEY BOARD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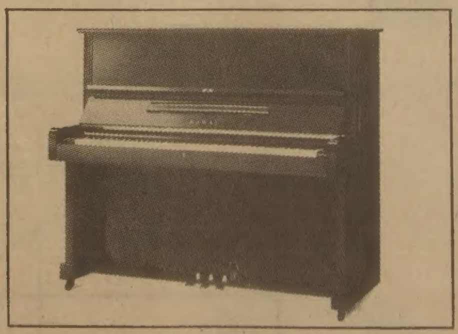
PIANO TECHNICIANS SAY "KAWAI NOW LEAD THE FIELD IN NEW GRANDS & MAKE THE BEST UPRIGHTS" REPRINT HOUSE & GARDENS - APRIL 1980

*UPRIGHT PIANO

KL-702



US-50



KS-3F

*전 자 올 갠

E-550

E-150
REG. $2,995
SPEC. $2,495

*GRAND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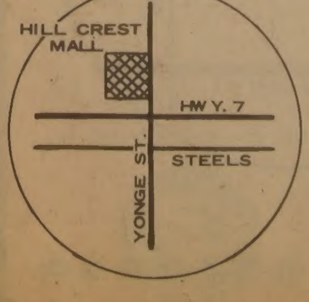
GS-30

KG-1C
REG. $8,995
SPEC. $7,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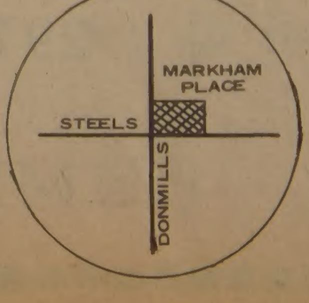
CE-7
REG. $3,125
SPEC. $2,685

802—1

Hillcrest Mall



전화 : 883—9407, 881—8211
대표 : 윤 호 섭
세일즈 · 매니저 ALLEN DUMA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